

AI 교육
중앙 속으로

2021

BECAUS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
인문계열

CHUNG-ANG UNIVERSITY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입학처장 메시지 004

I.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008
2. 지원자격	009
3. 전형일정	009
4. 수능최저학력기준	009
5. 전형방법	010

II. 2020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014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015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016

III. 인문사회계열/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23
2. 2020학년도 논술 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25
3.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027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1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30
2. 2021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43
3.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54
4. 2020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64

V.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072
2. 경영경제계열	084
3. 인문사회계열 II	095



학문의 경계가 없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
중앙은 시대를 선도하는 과감한 개혁으로 내일을 이끄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
새로운 시대, 중앙의 혁신 **SI 교육 중앙 속으로**

CAU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입학처장 메시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 김영화 교수입니다.

대학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중앙대학교가 2021학년도 논술가이드북을 출간합니다. 중앙대학교의 논술전형은 수험생의 논리적 사고력을 가늠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이며,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은 대학에서의 학업 습득은 물론 사회에 진출하여 수행할 직업 활동에 기본적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논리적 서술 능력은 대학입학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할 수험생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갖추고 배양해야만 하는 중요한 기초 소양 중 하나입니다.

중앙대학교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을 통해 808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이는 단일 모집 전형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전형이며,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은 논술 60%, 학생부 40%입니다. 논술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지만 그 실제 비중은 크지 않으며 논술고사를 탄실하게 준비하는 학생에게 유리하도록 전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그러했듯이 이번 2021학년도 논술에서도 우리 중앙대학교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출제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수험생, 학부모님, 진학지도 선생님들의 불필요한 혼란과 걱정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논술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올해도 중앙대학교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지킬 것입니다.

1. 출제 범위와 문제의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 수준을 넘지 않는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3. 논술 문제, 예시 답안, 채점 기준 등 평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중앙대학교는 이미 6월에 8,000여 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의 논술시험을 실시하여 40여 명의 교수진이 학생의 답안에 대해 평가 및 첨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논술가이드북에 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술가이드북에 예년 출제 문제, 올해 출제 방향, 채점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감점이나 가산점의 요인까지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통해서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 학교 교과 학습을 통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은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지침서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을 위해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이 수험생 여러분을 - 지나온 100년 역사와 더불어 새로운 100년을 꿈꾸는 - '중앙대학교'로 안내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중앙대학교 입학처장 **김영화**

I.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1.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008
2. 지원자격	009
3. 전형일정	009
4. 수능최저학력기준	009
5. 전형방법	010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전형 안내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계열	소재	대학	모집단위	모집 인원
인문	서울	인문	국어국문학과	8	자연	자연과학	물리학과	10	
			영어영문학과	15			화학과	8	
			유럽 문화학부	독일어문학			5	생명과학과	11
				프랑스어문학			6	수학과	10
				러시아어문학		5	공과	사회기반 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공학
			아시아 문화학부	일본어문학		5		도시시스템공학	7
				중국어문학		5		화학신소재공학부	16
			철학과	6		기계공학부		36	
		역사학과	6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3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9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11		
			공공인재학부	19		건축학부(건축학-5년제)	6		
			심리학과	11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55	
			문헌정보학과	7			융합공학부	17	
			사회복지학부	12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14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3			시학과	10	
			사회학과	10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5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0	의과	의학부	26			
	사범	교육학과	5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27			
		유아교육과	5	생명공학	생명자원 공학부	동물생명공학	15		
		영어교육과	8			식물생명공학	13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135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22		
		경영학부(글로벌금융)	14			식품영양	8		
		경제학부	30		시스템생명공학과	15			
		응용통계학과	10		예술공학	11			
		광고홍보학과	12			공과	첨단소재공학과	9	
		국제물류학과	10	계			402		
	산업보안학과(인문)	5	계		406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20	논술전형 총계		808			

※ 학칙개정에 따라 모집인원 및 모집단위 명칭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6월중 홈페이지 공고 예정입니다.
 ※ 교육평가인증: 적십자간호대학은 2015년도 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인증 획득 [인증기간: 2016.06. ~ 2021.06.]
 의과대학은 2018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4년 인증기간 획득 [인증기간: 2019.03. ~ 2023.0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학년 수료예정자 중 상급학교 진학대상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일정

1) 전형전체 진행일정

구분	일시	비고
인터넷 원서접수	2020. 9. 23.(수) 10시 ~ 28.(월) 18시	
서류제출	2020. 9. 23.(수) 10시 ~ 10. 5.(월) 우편소인기준	- 해당자에 한해 우편제출
수험생 유의사항 공고	2020. 12. 8.(화) 14시	
논술	자연계열	2020. 12. 12.(토)
	인문계열	2020. 12. 13.(일)
최초 합격자 발표	2020. 12. 27.(일) 14시	
최초 합격자 예치금 등록	2020. 12. 28.(월) ~ 30.(수) 16시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4.(월) (2021.1.5.(화) 16시까지 등록)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조회
합격자 전체 본 등록금 등록	2021. 2. 8.(월) ~ 2. 10.(수) 16시	

※ 상기 일정 및 시험장소는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2) 모집단위별 논술고사 일정

구분	12.12(토) - 자연계열		12.13(일) - 인문계열	
	대학	모집단위	대학	모집단위
1교시 (10:00-12:00)	자연과학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수학과	경영경제	경영학부(경영학, 글로벌금융), 경제학부, 응용통계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인문)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건설환경플랜트공학, 도시시스템공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건축학부(건축공학-4년제, 건축학-5년제), 화학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첨단소재공학과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자연)	사범	교육학과, 유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동물생명공학, 식물생명공학), 식품공학부(식품공학, 식품영양), 시스템생명공학과		
2교시 (14:00-16:00)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융합공학부	인문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철학과, 역사학과, 유럽문화학부(독일어문학, 프랑스어문학, 러시아어문학), 아시아문화학부(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학부, SI학과		
	경영경제	산업보안학과(자연)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공공인재학부, 심리학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문헌정보학과, 사회복지학부
	예술공학			
	의과	의학부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 지원한 모집단위가 배정되어 있는 시험일 및 시간에 응시해야 함. (타 시험시간 응시할 경우 퇴실 조치)

※ 입실은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완료해야하며,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수능최저학력 기준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을 반영하며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함

구분	수능최저학력기준	탐구영역 반영 방법	필수 충족 요건
인문	국어, 수학(가/나), 영어, 사/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2과목 평균	한국사 4등급 이내
의학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4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자연(서울)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3개 영역 등급 합 6 이내	상위 1과목	
자연(안성)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제2외국어와 한문을 사회탐구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하여 반영함

1) 전형요소

선발단계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비교과
일괄합산	60	20	20(출결, 봉사)

2) 논술

가) 출제수준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
-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사고력과 쓰기능력 측정에 중점을 둔 출제

나) 출제유형

- 인문계열(인문사회, 경영경제), 자연계열 논술 출제
- 자연계열의 과학논술은 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1 하여 응시하며 원서접수 시 응시할 과목과목을 선택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계열	논술유형	모집단위	출제유형
인문	인문사회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간호학과(인문)	언어논술(3문항)
	경영경제	경영경제대학 인문계열 모집단위 전체	언어논술(2문항), 수리논술(1문항)
자연	자연	산업보안학과(자연), 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대학, 예술공학대학, 창의ICT공과대학, 소프트웨어대학, 공과대학, 의학부, 간호학과(자연)	수리논술(3문항), 과학논술(1문항-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1)

다) 출제범위

계열	논술유형	출제유형	교과	과목명	시험시간
인문	인문사회/ 경영경제	언어논술	국어교과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120분
			사회교과	통합사회,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자연	자연	수리논술	수학교과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과학논술	수학,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학교과	생명과학, 물리, 화학 중 택1하여 응시함(원서접수 시 응시과목 선택) (생명과학) 통합과학,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물리) 통합과학, 물리학 I, 물리학 II (화학) 통합과학, 화학 I, 화학 II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대상: 2020, 2021년 2월 국내고교 졸업자

- 학교생활기록부 1~3학년 반영교과 전체 이수과목 중 석차등급 상위 10과목에 한해 반영(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음)

계열	반영교과	비교과
인문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중 상위 10과목	출결, 봉사 (정량 평가)
자연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중 상위 10과목	

※ 비교과 : 아래 표 [비교과 영역 환산표]에 따라서 출결과 봉사시간에 해당하는 점수로 환산 후 비교과 반영비율 적용

[비교과 영역 환산표]

출결		봉사	
무단(사고)결석 / 미인정 일수	환산점수	봉사활동시간	환산점수
1일 이하	5	20시간 이상	5
2~3일	4.9	19~17시간	
4~5일	4.5	16~13시간	
6~7일	3.75	12~10시간	
8~9일	2.75	9~5시간	
10일 이상	1	4시간 이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점수 만점 부여(2020.6.17.)

나) 비교내신 대상 및 반영방법

비교내신 대상	반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2월 이전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자 포함) • 검정고시 출신자 • 외국고교 졸업(예정)자 • 학생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생생활기록부만으로 석차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 자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 적용

ANG
TY
ANG
ANG
TY
ANG
ANG
TY

CAO



II.

2020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 | | |
|-----------------|-----|
|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 014 |
| 2.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015 |
| 3. 논술/교과 성적 현황 | 016 |

2020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모집인원 및 경쟁률

- 논술전형 경쟁률 50.3 : 1 (827명 모집, 41,607명 지원)
- 의학부(115.7:1), 화학신소재공학부(93.6: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87.2:1) 최상위 경쟁률 기록

[표1-1] 논술전형 경쟁률 및 추가합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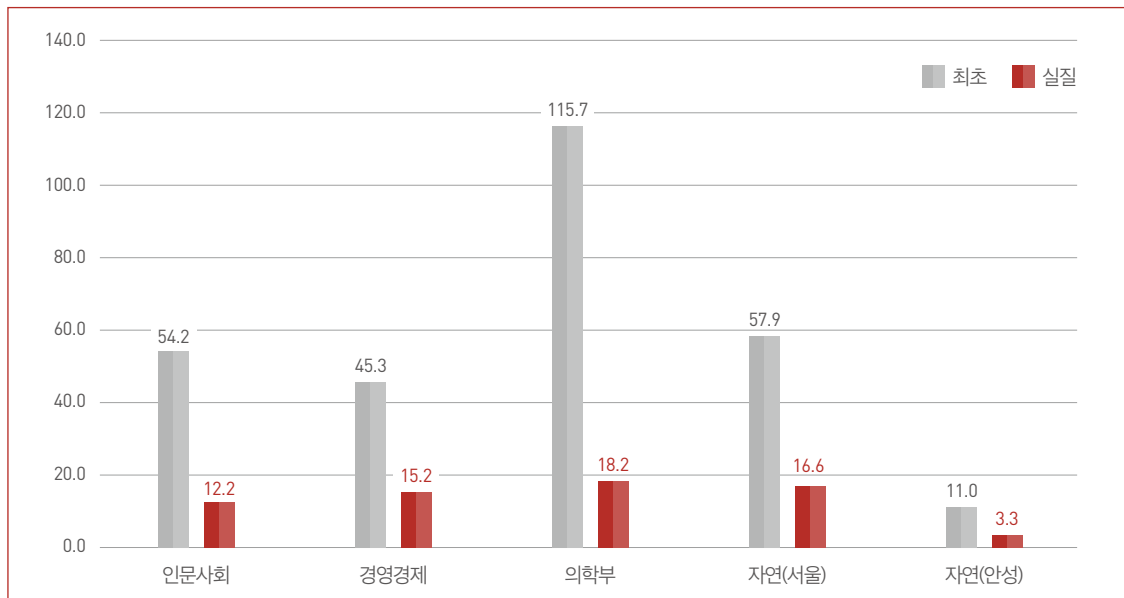
논술유형	모집인원	지원인원	최초경쟁률	실질경쟁률	추가합격률
인문사회	198	10,725	54.2	12.2	10.1%
경영경제	213	9,659	45.3	15.2	16.4%
의학부	30	3,472	115.7	18.2	30.0%
자연(서울)	288	16,674	57.9	16.6	36.8%
자연(안성)	98	1,077	11.0	3.3	26.5%
총계	827	41,607	50.3	13.7	23.7%

2020학년도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전체 50.3대 1로, 전년도(47.8:1)보다 상승하였다.

논술전형의 경쟁률은 수시모집 타 전형에 비해 높지만, 실질경쟁률은 경쟁률의 50%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원서접수 마감 후 공지되는 경쟁률에 주눅들 필요는 없다. 논술계열별 최초경쟁률과 실질경쟁률(응시율/수능최저기준통과율 적용)을 비교해보면 인문사회계열은 54.2:1→12.2:1, 경영경제계열은 45.3:1→15.2:1, 자연계열은 51.0:1→13.6:1로 대폭 낮아진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소재 자연계열 모집단위(학과)의 2020학년도 평균경쟁률은 57.9:1로, 지난해에 비해 상승하였다. 그 중 의학부는 115.7:1로 다른 모집단위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반면, 안성소재 자연계열 모집단위(학과)는 자연계열 평균경쟁률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림1-1] 2020학년도 논술전형 최초경쟁률 및 실질경쟁률



지원자 및 합격자 분포

- 지원자 및 합격자의 약 70% 일반고 출신 학생이 차지
- 지원자 및 합격자의 고3(졸업예정)수험생의 비율은 약 35%, N수생 비율은 약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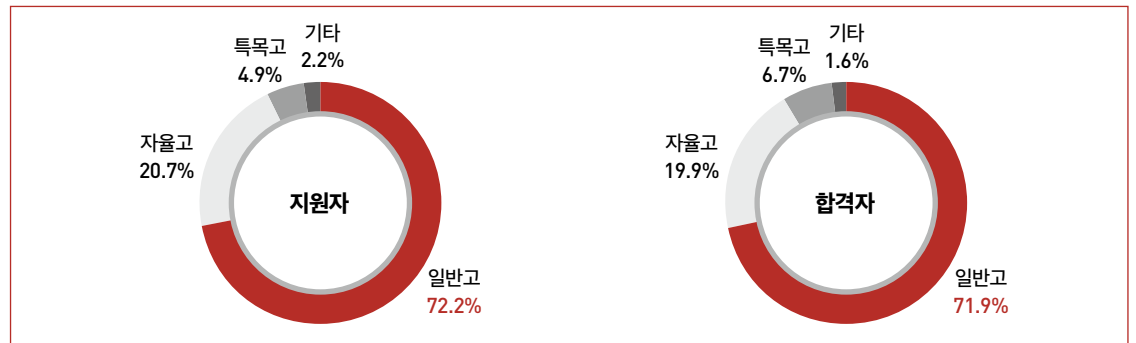
① 고교 유형별 분석

합격자의 71.9%가 일반고 출신이며 19.9%가 자율고, 6.7%가 특목고 출신 학생이었다. 특목고의 지원 및 합격비율은 인문계열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연계열 합격자 중 특목고 출신 학생의 비율은 낮았다.

[표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기타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기타
인문	72.0%	16.7%	8.3%	2.9%	72.0%	14.6%	11.2%	2.2%
자연	72.3%	24.6%	1.7%	1.5%	71.7%	25.1%	2.2%	1.0%
계	72.2%	20.7%	4.9%	2.2%	71.9%	19.9%	6.7%	1.6%

[그림2-2]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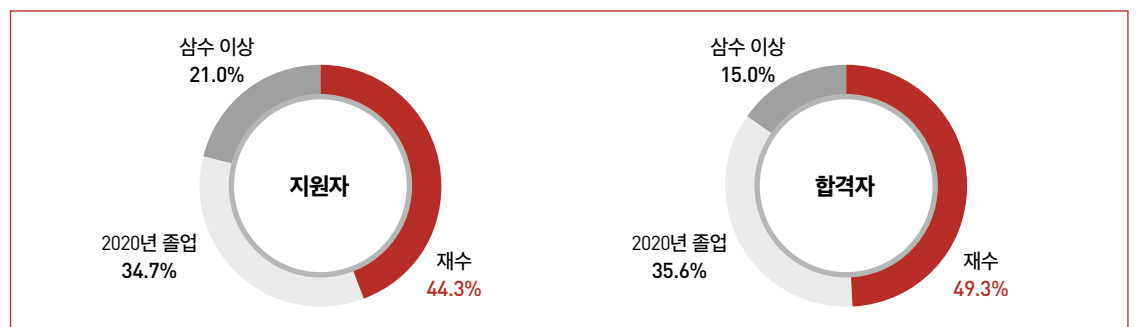
② 고교 졸업시기별 분석

합격자 중 35.6%가 고3(졸업예정자) 학생이었다. 고3 학생보다는 재수생이 다소 강세를 보였다. 계열별로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재수 지원자의 지원과 합격비율(44.3%, 49.3%)이 다소 높았다.

[표2-3]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계열	지원			합격		
	20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20년 졸업(고3)	재수	삼수 이상
인문	37.7%	43.1%	19.2%	35.0%	49.1%	15.8%
자연	31.8%	45.5%	22.7%	36.2%	49.5%	14.3%
계	34.7%	44.3%	21.0%	35.6%	49.3%	15.0%

[그림2-3] 논술전형 지원/합격자의 고교졸업시기별 현황



논술/교과 성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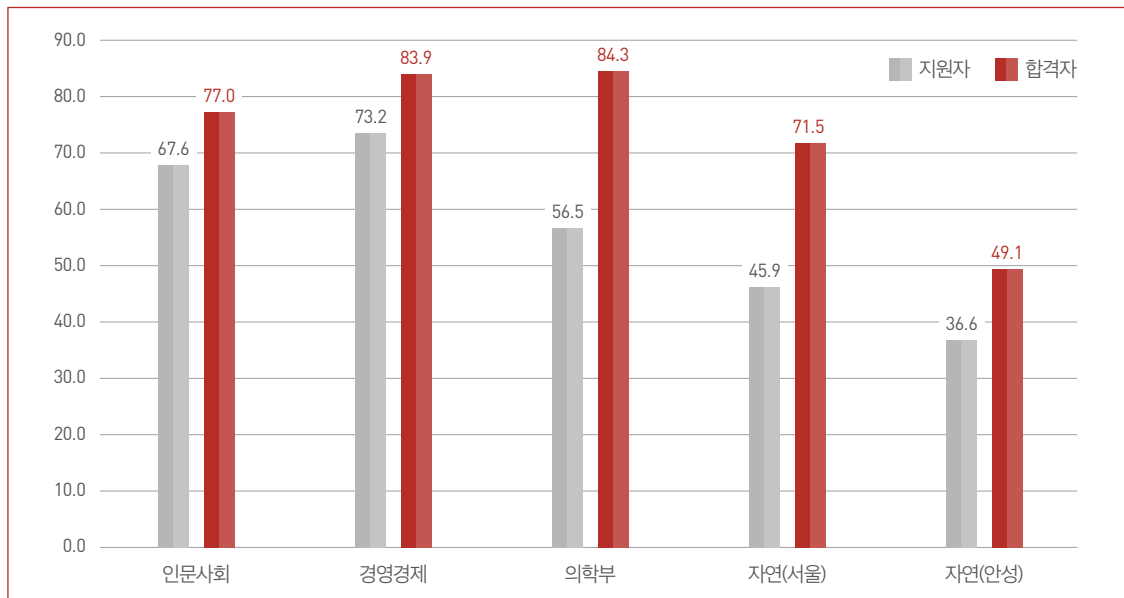
- 합격자 논술 평균 인문사회 77.0점, 경영경제 83.9점, 자연(서울/의학부 제외) 71.5점
- 경영경제, 자연계열 논술 수리문항의 고득점이 중요
- 교과 성적은 상위 10과목만 반영

① 논술 성적 분석

[표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구분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사회	67.6	7.5	77.0	2.8
경영경제	73.2	10.7	83.9	2.1
자연	의학부	56.5	84.3	3.2
	서울(의학부 제외)	45.9	71.5	6.5
	안성	36.6	49.1	8.3

[그림 3-1] 논술 유형별 지원/합격자 논술성적 현황



본교는 수험생 친화적인 논술을 추구하고 있다. 논술전형에 출제되는 발췌 지문 및 개념은 모두 고교과정의 교과서, EBS교재에서 인용된다. 따라서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고, 본교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한다면 논술전형을 준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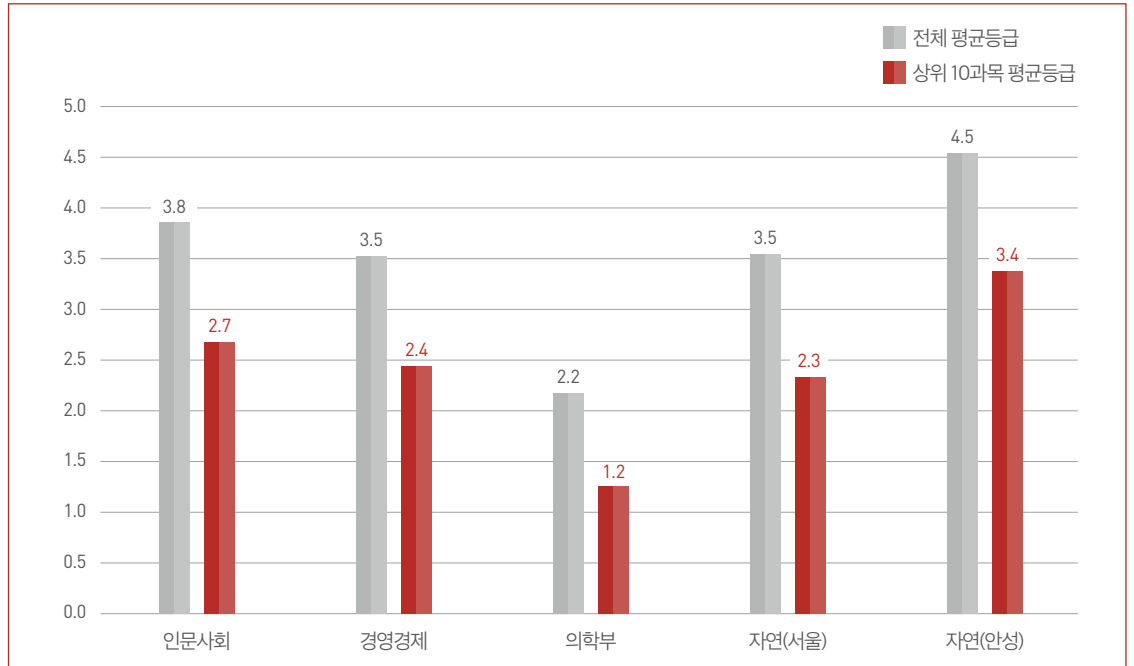
또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학과)에 따른 논술유형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비가 중요하다.

인문계열은 지원하는 모집단위에 따라 인문사회논술 또는 경영경제논술을 응시하게 된다. 인문사회논술은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논술은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으로 구성된다. 인문사회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77.0점, 경영경제논술의 합격자 평균점수는 83.9점이다. 경영경제논술의 경우 수리논술의 고득점으로 인하여 인문사회논술에 비해서 합격자 평균성적이 높은 편이다. 수리논술의 경우 출제의도를 잘 파악하고,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접근과정과 정답을 작성하되, 수식을 통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연계열은 단일교과형(수학 3문항, 과학 1문항(물리, 화학, 생명과학 중 택1))으로 수학의 비중이 크다. 자연계열 서울(의학부 제외)의 합격자 논술평균점수는 71.5점이나 표준편차가 인문계열 논술유형들에 비해 큰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표준편차가 크다는 것은 합격자들 중에 평균보다 표준편차만큼 낮은 학생도 합격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이다. 자연계열 안성소재 학과의 합격자 논술평균 점수는 49.1점, 표준편차 8.3으로 합격자의 논술성적대가 낮다. 수능최저충족 가능성이 높다면 논술성적이 부족하더라도 합격가능성이 높아진다. 의학부는 합격자의 논술평균 점수는 84.3점으로 높은 반면, 표준편차는 3.2로 자연계열 중에서는 작은 편이다.

② 교과 성적 분석

[그림 3-2] 합격자의 교과성적 (전체 vs. 상위 10과목) 현황



※ 인문사회/경영경제 :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사회교과 전체 중 상위 10개 과목 반영

※ 자연 : 국어교과, 수학교과, 영어교과, 과학교과 전체 중 상위 10개 과목 반영

본교 논술전형의 교과 성적 반영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상위 10과목에 한해 반영하는 것이다. 1~3학년 반영교과 전체 이수과목 중 학년별, 과목별 가중치 없이 단순히 석차등급이 가장 높은 10과목이 반영된다.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중 상위 10과목을, 자연계열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 상위 10과목을 반영한다.

중앙대학교는 석차등급이 가장 높은 10과목만 반영하므로 합격자의 전체 교과등급 평균보다 상위 10과목의 평균등급이 약 1등급 정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성적 반영대상은 2020학년도 기준으로 2019년, 2020년 2월 국내고교 졸업자이며, 그 외에는 논술성적에 의한 비교내신으로 반영된다.

참고자료 1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모집인원, 경쟁률 및 충원율 (세부)

대학	학과	전공	지원인원	모집인원	최초경쟁률	실질경쟁률	충원율(%)
인문	국어국문학과		414	8	51.8	12.0	12.5
	영어영문학과		817	15	54.5	13.7	13.3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	222	5	44.4	8.6	0.0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	252	6	42.0	7.7	0.0
	유럽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	218	5	43.6	6.8	0.0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193	5	38.6	5.8	0.0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	199	5	39.8	7.0	20.0
	철학과		302	6	50.3	10.2	50.0
	역사학과		319	6	53.2	12.5	50.0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537	9	59.7	15.9	0.0
	공공인재학부		1290	19	67.9	19.0	0.0
	심리학과		816	11	74.2	16.0	9.1
	문헌정보학과		340	7	48.6	11.7	14.3
	사회복지학부		626	12	52.2	9.6	8.3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133	13	87.2	18.8	7.7
	사회학과		610	10	61.0	16.2	30.0
	도시계획·부동산학과		558	10	55.8	12.3	0.0
사범	교육학과		248	5	49.6	12.6	0.0
	유아교육과		224	6	37.3	4.0	0.0
	영어교육과		312	8	39.0	9.6	12.5
자연과학	물리학과		400	10	40.0	10.1	30.0
	화학과		506	8	63.3	18.6	25.0
	생명과학과		902	11	82.0	22.3	27.3
	수학과		487	10	48.7	12.8	50.0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	344	7	49.1	12.9	14.3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	871	17	51.2	12.1	17.6
	건축학부	건축공학(4년제)	509	11	46.3	9.6	18.2
	건축학부	건축공학(5년제)	460	8	57.5	11.8	25.0
	화학신소재공학부		1498	16	93.6	29.1	43.8
	기계공학부		1945	34	57.2	16.6	52.9
	에너지시스템공학부		1282	23	55.7	15.7	39.1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3385	55	61.5	19.6	36.4
	융합공학부		1011	17	59.5	19.5	25.0
소프트웨어대학			1719	20	86.0	28.0	58.8
경영경제	경영학부	경영학	6424	135	47.6	16.6	17.0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505	13	38.8	11.3	15.4
	경제학부		1085	28	38.8	12.4	21.4
	응용통계학과		460	10	46.0	16.3	10.0
	광고홍보학과		563	12	46.9	12.8	8.3
	국제물류학과		416	10	41.6	11.9	20.0
	산업보안학과(인문)		206	5	41.2	10.6	0.0
	산업보안학과(자연)		290	5	58.0	16.4	40.0
의과	의학부		3472	30	115.7	18.2	30.0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1095	27	40.6	8.3	7.4
	간호학과(자연)		1065	36	29.6	6.4	38.9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	187	15	12.5	4.0	0.0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	119	13	9.2	2.2	7.7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219	22	10.0	3.4	22.7
	식품공학부	식품영양	102	14	7.3	1.9	50.0
	시스템생명공학과		230	13	17.7	5.8	53.8
예술공학대학			220	21	10.5	3.0	28.6

참고자료 ②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전형결과 (세부)

대학	학과	전공	논술성적		합격자 교과성적(등급)	
			지원자	합격자	전체	상위10개
인문	국어국문학과		68.9	77.1	3.9	2.7
	영어영문학과		67.6	78.4	3.5	2.3
	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	68.0	77.4	4.7	3.5
	유럽문화학부	프랑스어문학	71.1	79.1	4.2	2.8
	유럽문화학부	러시아어문학	67.8	77.4	4.5	3.3
	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학	65.7	76.6	4.8	3.4
	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	67.8	75.9	4.7	3.4
	철학과		68.9	78.2	4.0	2.8
	역사학과		68.0	75.1	3.6	2.5
사회과학	정치국제학과		63.6	74.0	3.7	2.6
	공공인재학부		67.3	78.1	3.6	2.3
	심리학과		69.1	78.0	3.7	2.5
	문헌정보학과		68.8	77.2	3.8	2.7
	사회복지학부		65.0	73.2	3.9	2.8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66.2	76.8	3.6	2.5
	사회학과		68.4	75.4	3.6	2.4
	도시계획·부동산학과		68.4	79.4	4.1	3.1
사범	교육학과		72.4	83.9	5.2	3.8
	유아교육과		69.0	79.3	3.3	2.3
	영어교육과		70.7	79.5	3.6	2.6
자연과학	물리학과		50.3	74.6	3.3	2.1
	화학과		48.7	73.6	3.7	2.5
	생명과학과		45.2	72.7	3.1	2.0
	수학과		50.3	77.6	3.6	2.3
공과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공학	46.4	69.9	3.9	2.9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건설환경플랜트	44.3	69.7	4.1	2.9
	건축학부	건축공학(4년제)	45.1	71.0	4.1	2.8
	건축학부	건축학(5년제)	43.1	70.6	4.0	2.8
	화학신소재공학부		48.6	77.8	3.0	1.8
	기계공학부		50.1	78.1	3.3	2.2
	에너지시스템공학부		47.5	74.0	3.6	2.4
창의ICT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44.8	70.4	3.5	2.2
	융합공학부		42.5	69.1	3.7	2.5
소프트웨어대학			41.6	68.2	3.3	2.1
경영경제	경영학부	경영학	74.3	84.9	3.5	2.5
	경영학부	글로벌금융	74.3	83.8	3.6	2.4
	경제학부		70.4	80.8	3.4	2.3
	응용통계학과		70.5	83.0	3.8	2.6
	광고홍보학과		70.5	81.5	3.5	2.4
	국제물류학과		69.6	82.7	3.5	2.3
	산업보안학과(인문)		69.0	82.1	3.9	2.9
	산업보안학과(자연)		41.3	65.6	3.9	2.6
의과	의학부		56.5	84.3	2.2	1.2
적십자간호	간호학과(인문)		65.8	74.8	3.7	2.6
	간호학과(자연)		46.0	63.5	3.8	2.5
생명공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	37.7	54.2	4.4	3.4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	36.6	46.7	4.1	2.9
	식품공학부	식품공학	37.2	50.6	4.6	3.4
	식품공학부	식품영양	39.2	44.8	4.7	3.6
	시스템생명공학과		39.9	56.5	4.3	3.1
예술공학대학			30.4	43.8	4.9	3.6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논술가이드북(인문계열)

III. 인문사회계열/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23
- 2. 2020학년도 논술 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25
- 3.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027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 1. 2021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30
- 2. 2021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43
- 3.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54
- 4. 2020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64

V.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 1. 인문사회계열 I 072
- 2. 경영경제계열 084
- 3. 인문사회계열 II 095



III.

인문사회계열/ 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23
- 2. 2020학년도 논술 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025
- 3.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027



인문사회계열/경영경제계열 논술시험 준비 방법 및 유의사항

1.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통합 논술에 대한 이해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의 방식은 통합 논술이다. 중앙대학교 논술 시험은 개별 교과목에 대한 단편적 지식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데 기본 목표가 있다. 통합 논술은 수험생들의 이러한 능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적합한 방식이다. 수험생들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계하는 과정을 논리적 혹은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통합 역량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시험 문제에 사용되는 제시문들은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통합 논술 시험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에게 낯설지 않은 내용이다. 다만, 통합 논술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묻기보다는 주어진 제시문의 내용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형식적 측면에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문항 3문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언어 논술형 2문항과 수리 논술형 문항 1문항으로 구성된다. 언어 논술형 문항과 수리 논술형 문항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수험생들이 유의해야 사항은 아래와 같다.

KEYPOINT

- 통합 논술에 대하여 이해하기
- 교과서에서 다뤄진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 모든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활용
-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과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의 차이점 알기

답안 작성을 위한 팁

첫째, 언어 논술형 문제에서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정확한 독해력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글들을 읽고 핵심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논술 준비의 출발이다. 물론 독해력은 고교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 이때, 논술 시험에 활용되는 개별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생각 단위' 또는 '대비되는 생각 단위들'을 담은 글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과서 가운데 이러한 유형의 글들을 선택하여 5~10분 내외의 정해진 시간 안에 논지를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다. 즉, 교과서를 읽을 때 하나의 생각 단위를 담은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특히 논술 시험에 주어진 시간 120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통합 논술의 답안은 자신의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쓰는 요약적인 글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핵심 논지에 대한 독해력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압축하여 답안을 간결하게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면에서도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 시험에서는 비교적 많은 수(6~9개)의 제시문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제시문의 전체적인 논지를 제한된 시간 내에 파악하고,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의 글자 수로 표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답안의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 대해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수험생들은 여러 개의 제시문들의 핵심 논지 파악, 차이점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지의 재구성 등 문제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데 적합한 글쓰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다. 통합형 논술에서는 여러 제시문들의 핵심 주제들을 활용하면서도 제한된 분량의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므로 논리적 구조를 갖춘 글쓰기가 매우 중요하다. 인문계열 논술의 답안의 구조는 문제 유형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특히 인문계열 논술 시험의 1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문제의 경우 질문에 나타난 제시문 간의 관계 및 문제의 요구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답안을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KEYPOINT

- 정해진 시간 내에 글의 논지를 파악하는 독해력 기르기
- 핵심 논지를 제한된 분량으로 요약하는 연습하기
- 문제의 요구 사항에 맞는 답안의 구조를 갖춘 글쓰기 연습하기

수리 논술형 문제

수리 논술형 문제는 수리적 능력에 기초하여 논리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수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논리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 해결 및 대안 제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수리 논술형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리적 능력은 수학 교과목에서 배운 특정 개념과 공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수험생이 제시문과 문제에서 제공된 정보를 종합하여 답을 찾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수리적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논리적 사고와 수리적 사고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수리 논술형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 접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KEYPOINT

- 제시문과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 답을 찾는 논리적 과정을 수리적으로 표현하기

2. 2020학년도 논술 전형 합격자가 들려주는 논술 대비법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민예진**

Q_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_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과에 2020학년도 논술전형으로 합격한 민예진입니다.

Q_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논술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진 학생이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했나요?

A_ 제가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시험 문제의 유형이 다른 논술시험에 비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중앙대학교 논술고사의 제시문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지식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논술고사 준비와 함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는데 집중했습니다.

Q_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다면 나만의 활용방법을 공유해주세요.

A_ 물론 논술이라는 전형 자체가 다른 전형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에 실려있는 최신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함께 제시된 예시 답안과 제가 작성한 답안을 비교하면서 유형화하는데 힘썼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3~4개의 기출 문제를 유형 중심으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꼼꼼히 분석하면서 중앙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논술 가이드북의 예시 답안을 모아 답안의 틀을 파악하였고 그것을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풀었습니다.

Q_ 현재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_ 중앙대학교 논술시험은 출제 유형이 매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 유형을 잘 파악한다면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어느 범위에서 제시문이 나와도 그 제시문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분명히 답안을 잘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시험이 끝나는 그 날까지 꼭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Q_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_ 이번에 논술전형으로 중앙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제학부 20학번 전선재입니다.

Q_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 논술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재 학생이 생각하는 중앙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했나요?

A_ 중앙대학교 논술고사의 특징은 다방면적으로 우수한 답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대 논술고사는 제시문의 양이 많은 만큼 수험생의 깊은 사고와 높은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이에 수험생은 여러 제시문들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시문 간의 연관성, 공통적인 부분이나 대조적인 부분까지 짚어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문제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내야 하며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글쓰기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얼핏 보면 충족해야 할 조건이 많아 까다롭고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자신의 독해력, 사고력, 창의력을 동시에 드러내 보이며 가장 수준 높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내 논리를 펼칠 방법은 다양해지며 제시문이 많은 만큼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가점 포인트' 또한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방면적으로 우수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대의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예시답안과 비교한 뒤 답안 재작성을 거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절대 답안지를 작성하고 이를 예시답안과 비교하는 작업에서만 끝나면 안됩니다. 예시답안과 비교하며 내가 어느 부분을 놓쳤는지, 나의 사고과정 중 어디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내가 무엇을 정확히 캐치하여 잘 표현해냈는지를 파악했다면 반드시 답안을 재작성 해보아야 합니다. 답안 재작성이란 해당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답안과 비교하며 파악했던 점들을 바탕으로 제시문들을 다시 독해해보고 문제를 다시 접하고 답안지를 다시 작성해보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보면 중앙대 논술에 대한 대비는 물론이고 타 대학의 논술고사의 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논술에 대한 감을 꽤 잡았고 자신의 답안이 정답과 가까워진다면, 이제 가점 포인트를 찾으려 노력해봅니다. 가점 포인트란 답안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답안에 포함시켰을 경우 사고력이나 창의력 측면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학교 측에서 따로 정해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점 포인트라는 것이 모든 문제에 명확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가점 포인트를 노리고 작성한 내용이 자칫하면 분량만 차지하고 글의 통일성을 흐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자신감이 생겼을 경우에 가점 포인트를 찾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_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다면 나만의 활용방법을 공유해주세요.

A_ 중앙대학교는 논술가이드북을 통해 매년 그 어떤 학교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중앙대 논술을 준비할 때 논술가이드북을 활용했습니다. 논술가이드북에는 중앙대에서 요구하는 논술전형 우수인재의 모습과 중앙대 논술의 유형과 특징이 나와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대 논술 기출문제도 실려 있어 논술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중앙대 논술의 유형과 특징을 미리 알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준비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중앙대 논술가이드북을 잘 활용하면 중앙대 논술을 준비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_ 현재 중앙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A_ 중앙대학교 논술전형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논술준비와 함께 수능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해야합니다. 아무리 논술성적이 우수하더라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한다면 합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술전형에 수능최저기준이 없는 학교가 아닌 경우라면 수능준비에도 최선을 다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고3 수험생활을 하면서 수능을 마치기 전까지는 논술을 열심히 준비하면서도 수능최저기준만 맞출 정도가 아닌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이상의 성적이 나오도록 수능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대 논술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수능 공부가 단순히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 시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어, 확률과 통계, 사회, 윤리, 경제 등과 관련된 과목들은 중앙대 논술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따로 시간을 내서 논술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앙대학교 논술 준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 논술시험 중 유의사항

- 시험 시작 전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 놓아야 해요.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즉시 퇴실 조치됩니다.
- 문제지를 받으면 반드시 첫 장의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세요.

- 인문사회계열 I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 (서명)

CHUNG-ANG UNIVERSITY

-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은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답안은 흑색 필기구로 작성해야 해요. 수정액, 수정테이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해야 하므로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띄어쓰기 포함)을 지키세요.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합니다.
-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해야 해요(단, 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그렇지 않으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답안의 글자 수 제한이 있으니 문단은 나누지 마세요.

<답안 작성의 올바른 예>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에서 고향은 생활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본 후 슬퍼하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나)에서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러나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난개발된 모습에서 고향이 타락했다는 깨달음이 상실감의 원인이 되었다. (다)에서 고향은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방인임을 자각한다. (라)의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착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개발로 인해 급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은 평화와 행복, 전통과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상업화, 산업화, 외세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답안 작성의 잘못된 예>

고향이 갖는 의미와 고향에 대해 상실감을 느끼는 원인은 다양하다. (가)에서 고향은 생활고로 인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마음에 자리 잡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제의 수탈로 인하여 완전히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본 후 슬퍼하면서 상실감을 느낀다. (나)에서 고향의 의미는 전통이 보전되고 삶의 스승인 할아버지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그러나 사라진 왕소나무로 상징되는 난개발된 모습에서 고향이 타락했다는 깨달음이 상실감의 원인이 되었다. (다)에서 고향은 이민 2세대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질감을 느꼈던 곳에서 외모와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이방인임을 자각한다. (라)의 고향은 정처 없는 삶을 끝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귀착지로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업적 개발로 인해 급변한 고향 소식을 접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안식처로서의 고향을 상실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고향은 평화와 행복, 전통과 추억, 소속감, 향수 등의 의미를 지니며, 이를 상실하게 된 이유는 상업화, 산업화, 외세침략, 정체성 혼돈 등 다양하다.

-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고, 답안지에는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적지 마세요.
-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는 답안지 교체가 허용되지 않아요.

IV.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 1. 2021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30
- 2. 2021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43
- 3.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054
- 4. 2020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064



실전 대비 모의논술 문제풀이

1. 2021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중략]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중략]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봤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녜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나)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향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중략]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협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뽕뽕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십 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십이 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하지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엄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다)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측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는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까닭 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라)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운전자: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자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자: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 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 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중략]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전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운전수: 우린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겨.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다령: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령: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중략]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멍뚱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마) 노래: 툭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군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를 않는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란 모든 일에 대하여 저는 당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 옳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자에게는 돌아가시게 된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니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헬멜: 당신은 어린애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소.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요.

노라: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이제부터 배우겠어요. 이 사회가 옳은지 제가 옳은 생각을 한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요. [중략]

노라: 저는 지난 8년 동안 끈기 있게 기다렸어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재난이 닥치자, 저는 이제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크로그스타의 편지가 그곳에 내던져졌을 때— 당신이 그 사나이의 요구대로 움직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사나이를 보고 외칠 줄 알았어요. ‘가서 세상에다 공표를 하게!’ 그리고 일이 벌어지게 되면—.

헬멜: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요? 내가 자기 아내를 수치와 추문 속에 떨어지게 한 뒤에 말이요?

노라: 저는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책임을 한 몸에 지게, 되리라고—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소, 하고 말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중략]

헬멜: 오, 당신은 철부지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구려.

노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제 자신이 일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나이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제 자신을 위협하게 되었대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위협에 빠지게 될까 봐 벌벌 떨었으면서도 위험이 이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태연해지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저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작은 종달새고 당신의 인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소중하게 취급하게 되리라는 것뿐. (일어선다.) 툭발— 그때 저는 깨달은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낯선 사나이의 생활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자식을 셋이나 낳았다는 것— 아, 참을 수 없어요. 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군요—.

헬멜: (슬픈 어조로) 그렇소. 나도 알았소— 알아들었다고. 우리들 사이에는 분명히 커다란 틈이 있소— 아, 그러나 노라, 그 틈은 메워질 수 없는 것일까?

노라: 지금과 같아서 저는 당신의 아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헬멜: 나도 판사람이 되어 보이겠소.

노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의 손에서 인형이 치워진다면요.

헬멜: 노라, 당신을 잃게 되다니— 아니, 아니요, 나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라: (무대 오른쪽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더욱 헤어져야만 해요.

헬멜: 그러나 당신은 내 아내요—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든 간에—.

노라: 제가 듣자 하니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떠나면 법에 의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당신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해요. 자아, 여기 당신이 준 반지를 돌려드리겠어요. 제 것도 돌려주세요.

헬멜: 그것까지도?

노라: 그것까지도.

(바)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늘 불안을 느끼며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에 빠지게 된다. 사르트르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며 주체적인 선

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실존주의는 이성과 같은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서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나 목적이 아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성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영국의 경험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실용주의를 전개하였다.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였다. 듀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근대 과학이 보여 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를 일컫는다. 듀이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아) 우리나라는 사회 복지 제도, 지역 격차 완화 정책, 적극적인 우대 조치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몫을 우선 보장하려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농·어촌 자녀의 특례 입학, 지역 균형 선발, 여성 할당, 장애인 의무 고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차별받아 온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도입하기도 한다. 반면, 소수자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자를 우대하는 것이 또 다른 역차별과 부정의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역차별이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나 방침으로 인해, 소수자가 아닌 집단이 도리어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도심 재개발은 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하고 건물이 노후화된 지역에 상업·업무 기능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낡은 건물을 새롭게 바꾸는 사업이다. 재개발을 통해 건물이 고층화되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도로 및 교통 체계가 개선되면 공공시설의 배치와 기능성이 좋아진다. 그 결과 낙후된 도심의 기능이 회복되어 도심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서 주민 생활이 편리해진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이 기존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되거나 일부 주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여 보상비와 이주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철거 재개발 후 원거주민들의 삶터와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아진 거주 환경에 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동양 윤리 사상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호 의존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이해한다는 인식이 공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역』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대대(對待)라는 말로 설명하였다. 대대란 다른 성질을 가진 것들이 대립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뜻한다. 낮과 밤은 대립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하고, 둘이 합쳐져야만 하루가 된다. 유교와 도가는 이러한 인식을 이어받아 만물의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세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음양은 반대이면서 서로를 보완하는 짝이다. 짝을 이루면서 둘은 하나의 복합적 개념이 되고, 하나씩 나누어 보아도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된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의존하고, 다른 하나가 없다면 이 하나 역시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실은 짝이 있다는 생각을 심화하여 심오한 철학을 만들어 낸 것이 『주역』이다.

[문제 1]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제시문 (라)의 자양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와 결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술하고, 그 특징의 원인을 제시문 (자)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9, 64-72쪽.
- 제시문 (나): 정약용, 「수오재기」, 고희진 외 5인, 『독서』, 동아출판, 2019, 16-18쪽.
- 제시문 (다): 백무산, 「나도 그들처럼」,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9, 129-131쪽.
- 제시문 (라): 이강백, 「북어 대가리」, 이승원 외 8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36-40쪽.
- 제시문 (마): 헨리크 입센/안동민 옮김, 「인형의 집」,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104-109쪽.
- 제시문 (바): 「주체적 결단과 실존」, 정창우 외 9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153-155쪽.
- 제시문 (사):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유용성」, 정창우 외 9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156-158쪽.
- 제시문 (아):
 -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이진석 외 12인, 『통합사회』, 지학사, 2017, 192쪽.
 - 「사회정의와 윤리」, 정탁준 외 7인, 『생활과 윤리』, 지학사, 2017, 94쪽.
 -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 구정화 외 4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17, 145쪽.
 - 「도시재개발」, 유성중 외 16인, 『한국지리』, 비상교육, 2017, 107쪽.
 - 「도시 계획과 재개발」, 신정엽 외 8인, 『한국지리』, 천재교과서, 2017, 113쪽.
- 제시문 (자):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 류지한 외 8인, 『윤리와 사상』, 비상교육, 2018, 29-33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9)에 실린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의 한 부분이다. 이 작품은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하며 감상하는 데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서울 재개발 지역 속 철거 위기에 놓인 한 가족이 겪게 되는 상실의 대상을 파악하고, 상실의 원인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동아출판, 2019)에 실린 정약용의 「수오재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1. 독서의 본질' 단원에 실린 글로,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읽는 데 학습 목표를 한다. 「수오재기」는 글쓴이(정약용)의 큰형님이 서재에 붙인 '수오재'라는 이름을 생각하며 얻은 깨달음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제시문 (나)를 읽은 뒤, 외부 환경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현상적 '나'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잃어버렸던 결과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술하고, 그 원인을 추론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9)에 실린 백무산의 「나도 그들처럼」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시의 화자의 잃어버리게 된 대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비판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파악된 대상과 원인을 바탕으로 시의 화자가 경험하게 되는 상실의 결과를 시의 표현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 신사고, 2019)에 수록된 이강백의 「북어 대가리」의 일부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참고지기, 트럭운전수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나타낸 희곡이다. 희화화되고 분업화 된 사회 속에서 참고지기(자양)가 신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제시문 속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9) 교과서에 수록된 헨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3. 문학의 수용과 소통' 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그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는 데 있다. 제시문 (마)는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작품 속 '노라'가 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속 '헬멜'이 노라를 대하는 태도와 '노라'와 '헬멜'의 갈등 전개 과정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2018)에 실린 「주체적 결단과 실존」의 일부이다. 이 글은 '7. 현대의 윤리적 삶' 단원에 실린 글로,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근대 윤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현대 윤리 사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은,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한 실존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실존주의 사상가들인 키르케고르와 샤르트르의 윤리학적 관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유용성」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제시문 (바)와 마찬가지로 '7. 현대의 윤리적 삶' 단원에 실린 것으로, 현대 윤리 사상가들의 윤리적 입장, 현대 윤리가 현대인의 삶에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글은 문제 해결의 유용성을 강조한 실용주의를 설명하며, 특히 듀이의 도구주의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과 정의로운 사회」, 『생활과 윤리』(지학사, 2017) 교과서에 실린 「사회정의와 윤리」, 『사회·문화』(천재교육, 2017) 교과서에 실린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소수자우대정책을 설명하고 적극적 소수자우대정책이 역차별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지리』(비상교육, 2017) 교과서에 실린 「도시재개발」, 『한국지리』(천재교과서, 2017) 교과서에 실린 「도시 계획과 재개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도시 재개발을 통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시설의 기능성,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측면과 기존 환경의 간과, 이주갈등,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정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비상교육, 2018) 교과서에 실린 「동양과 한국 윤리 사상의 연원」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동양 윤리의 근간 중 하나인 대대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대대는 하나의 대상이 짝을 이루어 대립과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고 대대의 개념을 확장하여 모든 유기체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전체로서 존재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예시 답안

[문제 1]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는 다양한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보여준다. (가)에서 삶의 터전과 가족 결속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철거 계고장이라는 외부 압력과 입주권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현실이며, 상실의 결과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가족의 좌절과 체념이다. (나)에서 ‘나’를 잃어버린 원인은 세속적 욕망에 흔들리기 쉬운 ‘나’를 잘 간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상실의 결과는 그런 자아의 특징을 자각하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다)에서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문명화와 과학화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분리이며, 상실의 결과는 인간이 자연과 소통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에서 보여주는 신념에 대한 확신의 상실은 분업화된 사회에서 한 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내적 갈등 때문이며, 결과는 확신을 상실했으나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실의 원인은 외부 압력과 가난, 세속적 자아, 인간과 자연의 분리, 내적 갈등으로 다양하며, 상실의 결과도 좌절과 체념, 자아 성찰, 불통과 부조화, 신념 고수 등으로 다양하다. (569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제시문 (라)의 자양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의 노라는 헬멜의 관습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아내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실존적 자각이다. 이 상황에서 노라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면 헬멜도 남편의 의무로부터 해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한편, (라)의 자양은 내적 갈등의 상황에서 선택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기존의 삶을 유지하기로 한다. (바)와 (사)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존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양은 참고지기로써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려는 주체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주체적 결단의 과정은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완될 수 있다. 자양은 운전수가 알려 준 제한된 정보와 자신의 막연한 생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 제해결에 유용한 지식과 실험적 시도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와 결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술하고, 그 특징의 원인을 제시문 (자)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20점, 400-420자]

(아)의 두 정책은 목표 달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부작용도 초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나 차별받는 집단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으나 다수가 피해를 보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도심 재개발은 경제 활성화, 생활의 편의성과 같은 효과를 낳지만 환경 훼손, 공동체 파괴,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런 현상의 공통된 특징은 (자)에 근거할 때 대대의 관점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대의 관점에서 보면,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 도심 개발과 환경 보존, 원거주민과 입주민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유기적 전체 속에서 의존하는 관계이다. 상호 의존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만을 우대하거나 특정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420자)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상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각각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만점)

- ① 제시문 (가): 삶의 터전과 가족 결속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철거 계고장이라는 외부적 압력과 입주권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현실로 인해 삶의 터전과 가족의 결속이 상실됨 (4점)

결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와 가족의 입장 차이는 결국 좌절과 체념으로 이어짐 (4점)

- ② 제시문 (나): 자아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세속적 욕망에 흔들리기 쉬운 '나'를 잘 간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 (4점)

결과: 그런 자아의 특징을 자각하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 (4점)

- ③ 제시문 (다): 자연과의 교감 능력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문명화와 과학화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함 (4점)

결과: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 (4점)

- ④ 제시문 (라): 신념에 대한 확신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분업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내적 갈등으로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을 상실함 (4점)

결과: 확신을 상실했으나,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는 삶을 선택함 (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 ① 원인에 대한 핵심적 표현: 외부 압력과 가난, 세속적 자아, 인간과 자연의 분리, 노동과 삶의 의미에 대한 내적 갈등
 ② 결과에 대한 핵심적 표현: 좌절과 체념, 자아 성찰, 불통과 부조화, 신념 고수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원인과 결과를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5점+25점)

1)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주장을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15점 만점): 3~15점 부여

- ① 노래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1: 노라가 헬멜의 관습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아내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 것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에 해당함 (5점)
- ② 노래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2: 노라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보기 위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주장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단에 해당함 (5점)
- ③ 노래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3: 노라가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면 헬멜도 남편으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주장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에 해당함 (5점)

- 제시문 (마)의 노래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2~15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노래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을 경우, 6~11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노래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했을 경우, 3~5점 부여

2)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했는지 평가한다. (25점 만점): 3~25점

- ① 제시문 (라): 자양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요약적으로 서술해야 함 (5점)
- ② 제시문 (바)와 (사)의 공통점: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관점에 따르면 보편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야 함 (5점)
- ③ 제시문 (바)의 활용: 제시문 (바)에서 설명하는 실존주의적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언급해야 함. 보편성, 개별성, 문제의식, 비판, 결단(결정, 선택), 주체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5점)
- ④ 제시문 (사)의 활용: 제시문 (사)에서 설명하는 실용주의의 방법론이 필요함을 언급해야 함. 유용성, 정보, 지식, 경험, 시도 등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5점)
- ⑤ 제시문 (바)와 (사)의 통합적 고려 및 제시문 (라)와의 연계: 실존주의와 실용주의의 공통된 관점에서 볼 때 자양의 결정 과정의 문제점, 실존주의 관점에서 자양이 참고해야 할 점과 실용주의 관점에서 자양이 참고해야 할 점이 어떻게 서로 보완되는지 통합적으로 서술해야 함 (5점)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하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가 참고할 점을 서술했을 경우, 21~25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하고, 두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라)와 연계하지 않았을 경우, 16~20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서술했으나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9~15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서술하였을 경우, 3~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바)에 근거하여 (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주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했는지 평가 (15점): 3~15점 부여	(마)의 주장과 (바) 논지의 연계성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했을 경우	3~5점
		(마)의 주장과 (바) 논지의 연계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을 경우	6~10점
		(마)의 주장을 (바) 논지의 연계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을 경우	11~15점
	②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가 참고할 점을 제시했는지 평가 (25점): 3~25점 부여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고려하여 서술했을 경우	3~8점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했으나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9~15점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했을 경우	16~20점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라)의 상황과 연계하여 서술했을 경우	21~25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6점+14점)

1)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의 목표(성과)와 결과(부작용)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6점 만점): 1~6점 부여

- ①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의 성과와 부작용: 소수자 우대 정책은 차별 개선을 통해서 기회 균등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으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함.
- ② 제시문 (아)의 도심 재개발 사업의 성과와 부작용: 도심 재개발 사업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시설의 기능성, 경제적 가치, 생활의 편의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주 갈등,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야 함.

- 제시문 (아)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의 목표(성과)와 결과(부작용)와 공통적 특징을 모두 제시한 경우, 3~6점 부여
- 제시문 (아)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 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목표(성과)와 결과(부작용)를 각각을 제시하거나 한 정책만을 단순 요약한 경우, 1~3점 부여

2) 제시문 (아)의 두 정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와 결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술하고, 그 원인을 제시문 (자)를 근거로 서술해야 한다.

(14점 만점): 3~14점

- 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특징 파악: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와 결과의 관계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② 공통된 특징의 원인 제시: 제시문 (자)에 근거해 대대의 관점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서술함.
- ③ 대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원인 평가: 대대의 관점에서 볼 때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 도심 개발과 환경 보존, 원거주민과 입주민은 서로 대립하면서도 유기적 전체 속에서 의존하는 관계임을 서술하고, 상호 의존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집단만을 우대하거나 특정 가치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부작용을 초래했음을 서술해야 함.

- 제시문 (자)의 대대 개념을 근거로 하여 공통된 부작용을 설명한 경우, 11~14점 부여
- 제시문 (아)와 (자)의 공통적 특징과 대대의 개념을 병렬적으로 요약한 경우, 7~10점 부여
- 제시문 (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특징만을 제시한 경우, 3~6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아)의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의 성과와 부작용을 파악했는지 평가 (6점): 1~6점 부여	제시문 (아)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 또는 도심 재개발 사업의 성과와 부작용을 단순 요약한 경우	1~3점
		제시문 (아)에서 소수자 우대 정책과 도심 재개발 사업의 성과와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언급한 경우	3~6점
	② 제시문 (아)의 두 정책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목표와 결과의 관계'를 토대로 서술하고, 그 원인을 제시문 (자)를 근거로 서술했는지 평가 (14점): 3~14점 부여	제시문 (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책 특징만을 제시한 경우	3~6점
		(아)와 (자)의 공통적 특징과 대대의 개념을 병렬적으로 요약한 경우	7~10점
		(자)의 대대 개념을 근거하여 공통된 부작용을 설명한 경우	11~14점

2. 2021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중략]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중략]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 했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뽕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네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 앞에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나) 수오재(守吾齋), 즉 ‘나를 지키는 집’은 큰형님이 자신의 서재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 그 이름을 보고 의아하게 여기며,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기로는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생각했다.

장기로 귀향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생각이 깊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중략] 유독 이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며 출입이 무상하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지만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혹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주면 떠나가며, 질탕한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미인의 예쁜 얼굴과 요염한 자태만 보아도 떠나간다. 그런데 한번 떠나가면 돌아올 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 만물 중에 잃어버리기 쉬운 것으로는 ‘나’보다 더한 것이 없다. 그러니 퐁퐁 묶고 자물쇠로 잠가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나’를 허투루 간수했다가 ‘나’를 잃은 사람이다. 어렸을 때는 과거 시험을 좋게 여겨 그 공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십 년이다. 마침내 조정의 벼슬아치가 되어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백주 대로를 미친 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십이 년을 보냈다. 그러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친척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한강을 건너고 문경 새재를 넘어 아득한 바닷가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 ‘나’도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허둥지둥 내 발뒤꿈치를 쫓아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는가? 바다의 신이 불러서 왔는가? 너의 가족과 이웃이 소내에 있는데, 어째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그러나 ‘나’는 멍하니 꼼짝도 하지 않고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안색을 보니 마치 엽매인 게 있어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수 없는 듯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다) 나는 바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계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비의 말을 새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측량이 되기 전에는

나는 별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해석이 되기 전에는

나는 대지의 말을 받아 적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이 되기 전에는

나는 숲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계가 되기 전에는

이제 이들은 까닭 없이 심오해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난해하여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내가 측량된 다음 삶은 터무니없이
난해해졌습니다

내가 계산되기 전엔 바람의 이웃이었습니다
내가 해석되기 전엔 물과 별의 동무였습니다
그들과 말 놓고 살았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소용돌이였습니다

(라)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자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운전자: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자: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깐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
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
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뭐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중략]

운전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
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깐 잘된 일이잖아?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
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봐. 그
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전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은 뭐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자: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했거든. 그
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
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운전수: 우린 트럭에 상자들을 다 옮겼어. 그런데 너희는 짐도 안 싸고 뭘 했지?

자양: 짐이라니……?

기임: 으음, 그렇게 됐어. 오늘 나는 이 창고 속을 떠난다구!

다링: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뭐죠?

자양: 북어 대가리죠. 그걸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링: 북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중략]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북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북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북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마) 노라: 툭발.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군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를 앓는군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란 모든 일에 대하여 저는 당신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법이 옳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자에게는 돌아가시게 된 친정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 자기 남편의 목숨을 구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헬멜: 당신은 어린애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소.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은 거요.

노라: 그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이제부터 배우겠어요. 이 사회가 옳은지 제가 옳은 생각을 한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어요. [중략]

노라: 저는 지난 8년 동안 끈기 있게 기다렸어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 재난이 닥치자, 저는 이제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굳게 믿었어요. 크로그스타의 편지가 그곳에 내던져졌을 때— 당신이 그 사나이의 요구대로 움직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 사나이를 보고 외칠 줄 알았어요. ‘가서 세상에다 공포를 하게!’ 그리고 일이 벌어지게 되면—.

헬멜: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요? 내가 자기 아내를 수치와 추문 속에 떨어지게 한 뒤에 말이요?

노라: 저는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책임을 한 몸에 지게, 되리라고—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소, 하고 말하리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중략]

헬멜: 오, 당신은 철부지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구려.

노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은 제 자신이 일생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 사나이답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제 자신을 위협하게 되었는데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위협에 빠지게 될까 봐 별별 떨었으면서도 위협이 이제 지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신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태연해지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저는 그전과 마찬가지로 작은 종달새고 당신의 인형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소중하게 취급하게 되리라는 것뿐. (일어선다.) 툭발— 그때 저는 깨달은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낯선 사나이와 생활해 왔다는 것, 그리고 그의 자식을 셋이나 낳았다는 것— 아, 참을 수 없어요. 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고 싶군요—.

헬멜: (슬픈 어조로) 그렇소. 나도 알았소— 알아들었다고. 우리들 사이에는 분명히 커다란 틈이 있소— 아, 그러나 노라, 그 틈은 메워질 수 없는 것일까?

노라: 지금과 같아서 저는 당신의 아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헬멜: 나도 판사람이 되어 보이겠소.

노라: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당신의 손에서 인형이 치워진다면요.

헬멜: 노라, 당신을 잃게 되다니— 아니, 아니요, 나로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라: (무대 오른쪽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더욱 헤어져야만 해요.

헬멜: 그러나 당신은 내 아내요— 지금도 앞으로도 어떻게 변하든 간에—.

노라: 제가 듣자 하니 아내가 남편의 집에서 떠나면 법에 의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일체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저는 당신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두 사람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해요. 자아, 여기 당신이 준 반지를 돌려드리겠어요. 제 것도 돌려주세요.

헬멜: 그것까지도?

노라: 그것까지도.

(바) 실존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합리성보다는 개개인의 주체성을 중시한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개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늘 불안을 느끼며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에 빠지게 된다. 사르트르는 모든 인간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음을 강조하며 주체적인 선택과 결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때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존주의는 인간의 개성을 긍정적으로 본다. 실존주의는 이성과 같은 보편적 특성을 통해서서는 인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나 목적이 아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성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나 용도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 사물과 달리 인간은 자신을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 실용주의 사상가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의 절대적인 기준을 강조하는 기존의 사상으로는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들은 영국의 경험론과 다윈의 진화론을 수용하여 실용주의를 전개하였다. 실용주의는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지식을 강조하였다. 듀이는 문제 상황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지성을 통한 탐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지성은 근대 과학이 보여 준 실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적 태도를 일

킨는다. 듀이는 지성적인 탐구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것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할 때, 문제 상황을 개선하고 사회의 성장과 진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문제 1] 상실의 '원인'과 '결과'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제시문 (라)의 자양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조건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조건 1)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친구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만 고려한다.

(조건 2) 전체 인원은 N 명이고, 각 사람은 3개 그룹 A, B, C 중 하나에만 속해 있다. 이때 그룹 B에 속한 인원은 그룹 A에 속한 인원의 2배이고, 그룹 C에 속한 인원은 그룹 B에 속한 인원의 2배이다.

(조건 3) 그룹 A에 속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확률은 0.5, 그룹 B에 속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확률은 0.3, 그룹 C에 속한 사람들끼리 친구가 될 확률은 0.2이다.

(조건 4) 그룹 A에 속한 사람과 그룹 B에 속한 사람이 친구가 될 확률은 0.17, 그룹 A에 속한 사람과 그룹 C에 속한 사람이 친구가 될 확률은 0.12, 그룹 B에 속한 사람과 그룹 C에 속한 사람이 친구가 될 확률은 0.13이다.

[문제 3] 그룹 A에 속한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은 친구 수의 기댓값이, 그룹 B에 속한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은 친구 수의 기댓값보다 더 커지는 데 필요한 전체 인원 N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한철우 외 7인, 『문학』, 비상교육, 2019, 64-72쪽.
- 제시문 (나) 정약용, 「수오재기」, 고희진 외 5인, 『독서』, 동아출판, 2019, 16-18쪽.
- 제시문 (다) 백무산, 「나도 그들처럼」, 방민호 외 5인, 『문학』, 미래엔, 2019, 129-131쪽.
- 제시문 (라) 이강백, 「북어 대가리」, 이승원 외 8인, 『문학』, 좋은책신사고, 2019, 36-40쪽.
- 제시문 (마) 헨리크 입센/안동민 옮김, 「인형의 집」, 김동환 외 6인, 『문학』, 천재교과서, 2019, 104-109쪽.
- 제시문 (바) 「주체적 결단과 실존」, 정창우 외 9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153-155쪽.
- 제시문 (사)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유용성」, 정창우 외 9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8, 156-158쪽.
- 문제 3 출전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고성은 외 5인, 『확률과 통계』, 좋은책신사고, 2019, 84-90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황선욱 외 9인, 『확률과 통계』, 미래엔, 2019, 86-91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평균)과 표준편차」, 권오남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9, 89-95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배종숙 외 6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9, 99-103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이준열 외 7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19, 91-97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류희찬 외 9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과서, 2019, 85-92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박교식 외 19인, 『확률과 통계』, 동아출판, 2019, 87-92쪽.
 - 「III-1-2 이산확률변수의 기댓값과 표준편차」, 김원경 외 14인, 『확률과 통계』, 비상교육, 2019, 77-82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육, 2019)에 실린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의 한 부분이다. 이 작품은 '2.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단원에 수록되어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소통하며 감상하는데 있다. 제시문 (가)에서는 서울 재개발 지역 속 철거 위기에 놓인 한 가족이 겪게 되는 상실의 대상을 파악하고, 상실의 원인과 그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독서』(동아출판, 2019)에 실린 정약용의 「수오재기」에서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1. 독서의 본질' 단원에 실린 글로,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읽는 데 학습 목표를 한다. 「수오재기」는 글쓴이(정약용)의 큰형님이 서재에 붙인 '수오재'라는 이름을 생각하며 얻은 깨달음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제시문 (나)를 읽은 뒤, 외부 환경이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기 쉬운 현상적 '나'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 '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으며, 잃어버렸던 결과가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술하고, 그 원인을 추론해야 한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미래엔, 2019)에 실린 백무산의 「나도 그들처럼」이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수록된 '3. 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단원의 학습 목표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그리고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시문 (다)에서는 시의 화자의 잃어버리게 된 대상을 파악하고, 원인을 비판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파악된 대상과 원인을 바탕으로 시의 화자가 경험하게 되는 상실의 결과를 시의 표현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좋은책 신사고, 2019)에 수록된 이강백의 「북어 대가리」의 일부이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제시문 (라)는 참고지기, 트럭운전수를 통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나타낸 희곡이다. 획일화되고 분업화 된 사회 속에서 참고지기(자양)가 신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을 제시문 속에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과서, 2019) 교과서에 수록된 헨리크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 일부를 발췌한 글이다. 이 작품은 '3. 문학의 수용과 소통' 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그 수용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하는 데 있다. 제시문 (마)는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 작품 속 '노라'가 결정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시문 속 '헬멜'이 노라를 대하는 태도와 '노라'와 '헬멜'의 갈등 전개 과정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2018)에 실린 「주체적 결단과 실존」의 일부이다. 이 글은 '7. 현대의 윤리적 삶' 단원에 실린 글로,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근대 윤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현대 윤리 사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다. 이 제시문은, 주체적인 삶의 자세를 강조한 실존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실존주의 사상가들인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의 윤리학적 관점을 보여준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미래엔, 2018) 교과서에 실린 「실용주의와 문제 해결의 유용성」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제시문 (바)와 마찬가지로 '7. 현대의 윤리적 삶' 단원에 실린 것으로, 현대 윤리 사상가들의 윤리적 입장, 현대 윤리가 현대인의 삶에 시사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글은 문제 해결의 유용성을 강조한 실용주의를 설명하며, 특히 듀이의 도구주의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예시 답안

[문제 1]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는 다양한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보여준다. (가)에서 삶의 터전과 가족 결속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철거 계고장이라는 외부 압력과 임주권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현실이며, 상실의 결과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가족의 좌절과 체념이다. (나)에서 ‘나’를 잃어버린 원인은 세속적 욕망에 흔들리기 쉬운 ‘나’를 잘 간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상실의 결과는 그런 자아의 특징을 자각하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이다. (다)에서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은 문명화와 과학화로 인한 인간과 자연의 분리이며, 상실의 결과는 인간이 자연과 소통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다. (라)에서 보여주는 신념에 대한 확신의 상실은 분업화된 사회에서 한 노동자가 경험하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내적 갈등 때문이며, 결과는 확신을 상실했으나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실의 원인은 외부 압력과 가난, 세속적 자아, 인간과 자연의 분리, 내적 갈등으로 다양하며, 상실의 결과도 좌절과 체념, 자아 성찰, 불통과 부조화, 신념 고수 등으로 다양하다. (569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노라의 주장’을 제시문 (바)의 논지에 근거하여 서술하고, 제시문 (라)의 자양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의 노라는 헬멜의 관습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아내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다. 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실존적 자각이다. 이 상황에서 노라는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면 헬멜도 남편의 의무로부터 해방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준다. 한편, (라)의 자양은 내적 갈등의 상황에서 선택에 대한 비판적 사고 없이 기존의 삶을 유지하기로 한다. (바)와 (사)의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실존주의 관점에서 볼 때, 자양은 창고지기로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찾으려는 주체적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주체적 결단의 과정은 실용주의 관점에서 보완될 수 있다. 자양은 운전수가 알려 준 제한된 정보와 자신의 막연한 생각에만 의존하지 말고 문해해결에 유용한 지식과 실험적 시도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70자)

[문제 3] 그룹 A에 속한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은 친구 수의 기댓값이, 그룹 B에 속한 어떤 사람이 관계를 맺은 친구 수의 기댓값보다 더 크기 위한 전체 인원 N 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 먼저 다음과 같이 기호를 정의한다.

n_k : 그룹 k ($k = A, B, C$)에 속한 인원

D_k : 그룹 k ($k = A, B, C$)에 속한 어떤 사람의 친구 수

$E(D_k)$: 그룹 k ($k = A, B, C$)에 속한 어떤 사람의 친구 수의 기댓값

P_k : 그룹 k ($k = A, B, C$)에 속한 사람들 간에 친구가 될 확률

P_{km} : 그룹 k 와 m ($k, m = A, B, C$)에 속한 사람 간에 친구가 될 확률

- 주어진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건 2) : $n_B = 2n_A, n_C = 2n_B = 4n_A, N = n_A + n_B + n_C = 7n_A$

(조건 3) : $P_A = 0.5, P_B = 0.3, P_C = 0.2$

(조건 4) : $P_{AB} = 0.17, P_{AC} = 0.12, P_{BC} = 0.13$

- 그룹 A에 속한 어떤 사람에 대한 경우를 고려해 보자. 이 사람의 친구 수인 D_A 의 기댓값 $E(D_A)$ 는 그룹 A에 속하는 친구 수의 기댓값, 그룹 B에 속하는 친구 수의 기댓값, 그리고 그룹 C에 속하는 친구 수의 기댓값의 합이 된다. 그룹 A에 속하는 친구 수의 기댓값은 자신을 제외한 A에 속하는 사람 수 $n_A - 1$ 명에서 서로 친구가 될 확률 P_A 를 곱한 값, 그룹 B에 속하는 친구 수의 기댓값은 B에 속하는 사람 수 n_B 명에서 서로 친구가 될 확률 P_{AB} 를 곱한 값, 그리고 그룹 C에 속하는 친구 수의 기댓값은 C에 속하는 사람 수 n_C 명에서 서로 친구가 될 확률 P_{AC} 를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E(D_A)$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각각을 이항분포의 평균 개념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도 있다.)

$$E(D_A) = (n_A - 1)P_A + n_B P_{AB} + n_C P_{AC}$$

$$= (n_A - 1)P_A + 2n_A P_{AB} + 4n_A P_{AC}$$

$$= n_A \{P_A + 2P_{AB} + 4P_{AC}\} - P_A$$

$$= n_A \{0.5 + (2 \times 0.17) + (4 \times 0.12)\} - 0.5 = 1.32n_A - 0.5$$

- 유사하게 그룹 B에 속한 어떤 사람에 대한 경우, 친구 수인 D_B 의 기댓값 $E(D_B)$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E(D_B) &= n_A P_{AB} + (n_B - 1) P_B + n_C P_{BC} \\
 &= n_A P_{AB} + (2n_A - 1) P_B + 4n_A P_{BC} \\
 &= n_A \{P_{AB} + 2P_B + 4P_{BC}\} - P_B \\
 &= n_A \{0.17 + (2 \times 0.3) + (4 \times 0.13)\} - 0.3 = 1.29n_A - 0.3
 \end{aligned}$$

- 그룹 A에 속한 사람의 전체 친구 수의 기댓값이 그룹 B에 속한 사람의 전체 친구 수의 기댓값보다 더 크다는 것은 $E(D_A) > E(D_B)$ 이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는 전체 인원 N 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E(D_A) > E(D_B) &\Leftrightarrow 1.32n_A - 0.5 > 1.29n_A - 0.3 \\
 &\Leftrightarrow 0.03n_A > 0.2 \\
 &\Leftrightarrow n_A > 6.67
 \end{aligned}$$

- n_A 의 최솟값은 7(명)이고, 따라서 전체 인원 $N (= 7n_A)$ 의 최솟값은 49(명)이다.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32점+8점)

-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 나타난 상실을 중심으로 그 원인과 결과를 각각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 (32점 만점)

- ① 제시문 (가): 삶의 터전과 가족 결속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철거 계고장이라는 외부적 압력과 입주권을 살 수 없는 가난한 현실로 인해 삶의 터전과 가족의 결속이 상실됨 (4점)

결과: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와 가족의 입장 차이는 결국 좌절과 체념으로 이어짐 (4점)

- ② 제시문 (나): 자아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세속적 욕망에 흔들리기 쉬운 '나'를 잘 간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 (4점)

결과: 그런 자아의 특징을 자각하고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 (4점)

- ③ 제시문 (다): 자연과의 교감 능력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문명화와 과학화로 인해 인간과 자연이 분리되어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함 (4점)

결과: 자연과의 교감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 (4점)

- ④ 제시문 (라): 신념에 대한 확신의 상실을 중심으로

원인: 분업화된 산업구조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내적 갈등으로 자기 신념에 대한 확신을 상실함 (4점)

결과: 확신을 상실했으나, 기존의 신념을 고수하는 삶을 선택함 (4점)

- 네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모두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부여
- 세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부여
- 두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부여
- 한 개의 제시문에서 결과와 그 원인을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부여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상실의 원인'과 '상실의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고(3점),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① 원인에 대한 핵심적 표현: 외부 압력과 가난, 세속적 자아, 인간과 자연의 분리, 노동과 삶의 의미에 대한 내적 갈등

② 결과에 대한 핵심적 표현: 좌절과 체념, 자아 성찰, 불통과 부조화, 신념 고수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원인과 결과를 찾아 제시(32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 ~ 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 ~ 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②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③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5점+25점)

1) 제시문 (마)와 제시문 (바)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제시문 (바)에 근거하여 제시문 (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주장을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15점 만점): 3~15점 부여

- ① 노래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1: 노래가 헬멜의 관습적이고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아내의 역할에 의문을 품는 것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에 해당함 (5점)
- ② 노래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2: 노래가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포기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해 보기 위해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주장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단에 해당함 (5점)
- ③ 노래의 주장과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 3: 노래가 자신이 자유의 몸이 되면 헬멜도 남편으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주장은 실존주의가 강조하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태도에 해당함 (5점)

- 제시문 (마)의 노래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정확히 서술했을 경우, 12~15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노래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을 경우, 6~11점 부여
- 제시문 (마)의 노래의 주장과 (바)의 실존주의 관점의 연계성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했을 경우, 3~5점 부여

2)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결정 과정에서 참고할 점을 제시했는지 평가한다(25점 만점): 3~25점

- ① 제시문 (라): 자아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요약적으로 서술해야 함 (5점)
- ② 제시문 (바)와 (사)의 공통점: 실존주의와 실용주의 관점에 따르면 보편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해야 함 (5점)

- ③ 제시문 (바)의 활용: 제시문 (바)에서 설명하는 실존주의적 문제의식이 필요함을 언급해야 함. 보편성, 개별성, 문제의식, 비판, 결단(결정, 선택), 주체성 등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5점)
- ④ 제시문 (사)의 활용: 제시문 (사)에서 설명하는 실용주의의 방법론이 필요함을 언급해야 함. 유용성, 정보, 지식, 경험, 시도 등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함 (5점)
- ⑤ 제시문 (바)와 (사)의 통합적 고려 및 제시문 (라)와의 연계: 실존주의와 실용주의의 공통된 관점에서 볼 때 자아의 결정 과정의 문제점, 실존주의 관점에서 자아가 참고해야 할 점과 실용주의 관점에서 자아가 참고해야 할 점이 어떻게 서로 보완되는지 통합적으로 서술해야 함 (5점)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하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가 참고할 점을 서술했을 경우, 21~25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하고, 두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였으나 (라)와 연계하지 않았을 경우, 16~20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서술했으나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9~15점 부여
-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서술하였을 경우, 3~8점 부여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바)에 근거하여 (마)에 나타나는 주인공의 주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했는지 평가 (15점): 3~15점 부여	(마)의 주장과 (바) 논지의 연계성을 한 가지 측면에서만 서술했을 경우	3~5점
		(마)의 주장과 (바) 논지의 연계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을 경우	6~10점
		(마)의 주장을 (바) 논지의 연계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서술했을 경우	11~15점
	②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가 참고할 점을 제시했는지 평가 (25점): 3~25점 부여	(바)와 (사)의 논지 중 하나만 고려하여 서술했을 경우	3~8점
		(바)와 (사)의 논지를 모두 서술했으나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을 경우	9~15점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했을 경우	16~20점
	(바)와 (사)의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라)의 상황과 연계하여 서술했을 경우	21~25점	

[문제 3] 20점 만점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 (조건 2)를 이해하고, 그룹 B와 C에 속한 인원을 그룹 A의 인원수로 올바르게 표현한 경우, 즉 $n_B = 2n_A$, $n_C = 2n_B = 4n_A$, $N = n_A + n_B + n_C = 7n_A$ 이런 관계를 올바르게 표현한 경우: +2점
- 그룹 A에 속한 사람의 친구 수의 기댓값 $E(D_A)$ 를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그룹 B에 속한 사람의 친구 수의 기댓값 $E(D_B)$ 를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E(D_A)$ 와 $E(D_B)$ 를 비교하여 그룹 A의 인원, 또는 전체 인원 N 의 가능한 범위를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N 은 7의 배수임을 이용하여 N 의 최솟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3점

3.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아 정체성이란 ‘나 자신에 대한 통합된 관념’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성격, 취향, 관심, 능력, 가치관 등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지속적이고 통합적일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 여러 개의 아이디나 대화명, 아바타 등을 사용하면서 나이, 성별, 인종 등 신분이나 성격 등을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실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이버 자아들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사이버 자아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한 폭력적인 행동을 실제 현실에서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자아로 인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은 가치관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탈억제 심리가 잘못 작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친 말을 사용하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나) 기차가 등장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철도가 나타날 무렵, 서양에서는 우편 마차가 가장 빠른 교통편이었다. 그레 봤자 마차의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정도였다. 기차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 그만큼 철도가 놓인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제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 가면 된다. 그러나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 없이 새로 깔 수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차끼리 마주치지 않으려면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여러 도시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동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랐다. 예컨대 아침에 다른 도시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날짜에 맞추어 조립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 마을 식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썼다간 열차를 놓치기 일쑤다. 그러면 다른 곳까지 피해가 돌아간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기차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 ‘철도 시간’은 무지막지했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만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다.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도 없어야 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 숲이건, 사막이건, 습지가건 상관없었다.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할 뿐이다. 중간의 과정이 어찌 되었건 시간은 칼같이 맞추어야 했다.

시간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닦달하기 시작했다. 지쳤건, 힘든 일이 있었건, 모든 일은 ‘끝내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때에 맞춰 일을 시작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시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보다 식사 시간이기엔 밥을 먹는 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되었기에 공부한다. 쉬고 싶어서 쉬기보다는 휴식 시간이기엔 책상에서 일어선다.

(다)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핏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라)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 및 학술적 목적의 정보 교환을 위해 몇몇 컴퓨터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 칭하는 것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정보망이다. 웹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보망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거기에 올라 있는 웹페이지, 문서, 사진 등 여러 형태를 가진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도 웹에 원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의 세계는 컴퓨터, 모뎀, 통신 케이블, 여러 소프트웨어의 복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자료를 교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미국 철학자 허버트 드레퓔스의 말처럼, 인터넷은 처음의 개발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에 대한 상도 없고 그 발전의 방향도 알 수 없다. 학술 및 군사용 정보 교환이라는 최초의 목적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중략]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라 부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보의 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는 세상을 더욱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 불합리한 억압을 없애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

회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독재 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방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런 견해에서 비롯된다.

풍부한 정보의 보고라는 점과 더불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전의 미디어들은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정보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에서 통합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 노르웨이의 범죄학자 매티슨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패놉티콘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로 자리 잡았던 19세기 동안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시놉티콘이라고 명명했다. 패놉티콘과 달리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었다. 19세기 이후에 사회의 패놉티콘화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과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는 시놉티콘도 발달했다는 것이다. 매티슨은 패놉티콘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역감시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바로 여기에 푸코의 역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제임이 분명하지만 이에는 한계가 있다.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이것이 원래 취지와는 다른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를 획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했다는 점이 그렇다.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를 일삼는 의원,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락에 의해 좌우되는 입법 과정은 국가가 선거철에만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말초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 경쟁에 여념이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정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에 대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인이나 사회의 권력자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 물론 의회와 언론이 아직 역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관들은 이제 그 자체가 역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져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에 쉽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정보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될까?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효율 저하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또 양적 증대에 비해 정보의 질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며,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정보의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조작에 서투른 중년층 직장인이 컴퓨터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느껴 결국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 격차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인종, 기업과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 우리 시대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표면적이었으며, 자연의 확고한 균형 상태를 파괴하기에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에 닥쳐올 공포와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앙이나 참사를 미리 염려해 우리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아) 영화 ‘네버 렛미고’에서는 복제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완료’를 사용한다. 그들은 인간과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죽음에서는 인간과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영화에서는 복제 인간들의 삶이 인간들보다 더 인간적이지만, 현실에서는 복제 인간의 비참함이 잘 드러난다. 그들의 인생은 매우 짧다. 장기를 이식을 20살부터 시작해서 그 후 몇 번의 반복된 수술을 거친다.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는 복제 인간들의 장기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도 갖지 못한다.

(자) 결과론적 윤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불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만족을 불러오고 쾌락을 증진하는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해한다.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으로서, 좋음이 옳음을 낳게 된다. 결과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공리의 원리를 개별 행위에 직접 적용하여, 다른 행위보다 더 많은 공리를 산출하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

한편 장자는 자연스러운 본성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삶의 태도로서 자급자족과 평등의 실천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평등은 인간과 사물의 자연적 본성은 같다고 보는 장자의 만물제동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장자는 “인간을 포함한 각각의 사물에는 도가 있으며, 도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라고 말한다. 사물에 대한 귀천, 고하, 시비, 선악의

구별은 자기중심적 사고, 즉 편견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장자의 견해이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소요의 경지나 세상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한결같이 보는 제물의 경지는 모두 장자가 추구한 도를 따르는 이상적인 상태이다.

[문제 1]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제시문 (자)의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해 보시오. [20점, 400-420자]

제시문 출전

- 제시문 (가): 「사이버 공간의 자아 정체성」, 조성민 외 6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3(2017), 148-149쪽.
- 제시문 (나): 안광복, 「철도와 시간」, 문영진 외 11인, 『국어 II』, 창비, 2013(2016), 98-99쪽.
- 제시문 (다): 유하, 「자동문 앞에서」, 조현설 외 30인, 『국어 I』, 해냄에듀, 2013(2017), 258쪽.
- 제시문 (라): 손화철, 「정보의 바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 문영진 외 8인, 『국어 I』, 창비, 2013(2018), 59-64쪽.
- 제시문 (마): 홍성욱, 「패놉티콘」, 한철우 외 7인, 『독서와 문법』, 교학사, 2013(2017), 224-229쪽.
- 제시문 (바): 이필립, 「21세기 정보 통신 기술의 혁명」, 박영복 외 12인, 『국어 I』, 천재교육, 2013(2017), 163-166쪽.
- 제시문 (사): 요나스, 「책임의 원칙」, 변순용 외 8인,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2013(2017), 126쪽.
- 제시문 (아): 「생각」, 조성민 외 6인,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015, 70쪽.
- 제시문 (자): 「상대주의적 평등적 세계관」, 「결과론적 윤리의 특징」, 박효종 외 9인, 『윤리와 사상』, 교학사, 2017, 83쪽, 137쪽.
「현대 공리주의와 그 의의」, 박찬구 외 9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6, 165쪽.
「장자의 사상」, 정창우 외 11인, 『윤리와 사상』, 미래엔, 2015, 99쪽.

예시 답안 및 해설

[문제 1]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KEYPOINT

- 문제에서 주어진 핵심어를 통해 제시문 읽기
- 각 제시문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논지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된 핵심 어구 파악하기
- 파악한 핵심 어구들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요약하기
- 각 제시문의 차이점을 종합하여 창의적인 결론 도출하기

예시 답안

(가)~(라)는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보여준다. (가)는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안정적인 정체성의 형성을 어렵게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다중적 자아 형성이 가능하고 구속감이 적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서 비롯됐다. (나)는 개인의 일상이 시간에 지배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철도를 무한정 건설할 수 없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타 지역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다)는 개인이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의식하지 못한 사이 자동문의 편리함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라)는 인터넷이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컴퓨터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발명자의 의도를 벗어나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정체성 혼란, 시간에 지배, 점진적 무기력화,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 범위의 확대 등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시간의 표준화, 편리성에 대한 적응, 통신기술의 혁신과 이용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569자)

해설

수험생들은 제시문을 독해하기 전에 먼저 주어진 문제를 두 번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출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수험생들은 우선 제시문 (가), (나), (다), (라)는 공통적으로 ‘기술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즉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한 근본 ‘원인’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 따라 네 제시문의 논지가 구별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출제 의도를 이해한 후, 각각의 제시문 속에서 ‘결과’와 ‘원인’이 가장 잘 드러나는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이를 정리하고 압축해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글쓰기가 필요하다. 제시문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선행 지식이나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출제 의도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를 꼼꼼히 분석적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시문 (가)의 두 문장, 즉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

워질 수 있다.”와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에서 기술 사용의 ‘결과’, 즉 사이버 공간의 이용이 안정적인 자아 정체성의 형성과 유지를 어렵게 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 한편 제시문 (가)의 다른 두 문장,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와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를 통해 다중적 자아 형성이 가능하고 구속감이 적은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앞서 언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시문 (나)를 읽어보면, 철도를 무한정 건설할 수 없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다른 지역의 경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개인의 일상이 시간에 지배되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다)는 문학 지문이기 때문에 결과와 원인이 직접 기술되어 있기보다는 비유와 상징을 통해 암시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결과와 원인을 찾기가 다른 제시문에 비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지문을 잘 분석해 보면 핵심 어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혹은 “머지 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와 같은 시구에서 기술의 반복적 사용으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차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변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와 같은 시구가 암시하듯이, 부지불식간 자동문의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현대인의 모습에서 무기력한 수동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는 컴퓨터 간의 연결이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애초의 발명자의 의도를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은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술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각 제시문에서 찾은 ‘결과와 원인’을 서론, 본론, 결론 형식에 맞춰 자신의 문장으로 논리적으로 기술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주제에 대한 긴 배경 설명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된 도입부보다는 간단하고 짧게 서론을 기술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서론을 길게 쓰면 본론에서 논지를 전개하고 글을 마무리 짓는 결론을 쓸 공간이 부족하게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간명한 서론이면 충분하다. “(가)~(라)는 기술 사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보여준다.” 본론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안배 기술’이 필요하다. 제시문 별로 결과와 원인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나눠 기술하거나, 제시문 별로 결과와 원인을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하여 기술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특정한 제시문에 대한 답안을 다른 제시문에 비해 너무 길게 쓰거나 짧게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네 제시문에 대한 답안의 분량이 균형 있게 배치되면 본론의 짜임새와 가독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론의 분량은 짧지만 논술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본론에서 ‘결과와 원인’을 잘 요약했어도 결론을 맺지 않거나 너무 상투적이면 고득점을 받기 어렵다. 가장 피해야 할 결론 형식은 서론과의 동어반복이다. 말하자면 네 제시문에서 발견한 ‘결과와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지 않고 “따라서 기술 사용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은 다양하게 나타난다.”와 같은 추상적인 문장으로 결론을 대신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본론에서 압축한 요약문을 근거로 각 제시문 사이의 차이점을 찾고, 이를 종합하여 창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결론 쓰기에서 필요한 덕목은 본론에서 기술한 내용을 유사한 개념어로 압축하는 능력이다. 짧은 결론에 풍부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결단력 있는 단어 선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문제 1]의 결론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정체성 혼란, 시간에 지배, 점진적 무기력화, 정보 접근과 쌍방향적 소통 범위의 확대 등 기술 사용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시간의 표준화, 편리성에 대한 적응, 통신기술의 혁신과 이용 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KEYPOINT

- 비판 대상이 되는 제시문과 비판 기준이 되는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 비판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 근거가 되는 제시문의 논지를 토대로 대안 제시하기
- 두 개의 세부 문제를 고려하여 답안의 분량을 적절히 배분하기

예시 답안

(라)는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접근의 보편성과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 덕분에 경제 발전 및 정치적 해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마)는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론과 의회가 대중의 수동적이고 무비판적 태도를 이용하여 스스로 권력화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오히려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지에서 볼 때, 기술의 긍정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라)의 견해는 기술이 권력자의 사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술 사용의 낙관론에서 벗어나서 정보의 편향, 정보격차,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 등과 같은 기술 사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이 국내적 차원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의 무비판적 사용이 현재 인간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윤리학의 토대 위에 해야 할 일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553자)

해설

[문제2]는 두 개의 세부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세부 문제는 (마)의 논지를 근거로 하여 (라)의 견해를 비판할 것으로 요구한다. 이를 위해 (라)의 견해와 (마)의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각 제시문을 읽어 보면 (라)는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마)는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언급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어떤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지, 어떤 위험성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그 논지를 서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라) 제시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도약이나 정치적 해방이 가능해질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으로 인해 누구나 정보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쌍방향 소통으로 참여가 가능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논지를 파악한 후, (라)의 견해를 예시 답안처럼 ‘○○○ 인해/덕분에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로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제시문 (마)는 긍정적 역할을 했던 언론과 통신기술이 어떻게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마)의 논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포함시켜야 할 내용이며 (라)의 견해를 비판하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마)에서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 “당락에 의해 좌우되는”, “시청률 경쟁”,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언론 장악” 등과 같은 핵심 어구를 파악하여 어떻게 역감시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간결하게 서술해야 한다. 그런 다음, (마)의 논지를 다시 압축하면서 이를 간과한 (라)의 견해를 비판하는 것으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세부 문제는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라)의 견해는 첫 번째 세부 문제를 해결할 때 파악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를 파악하고 두 논지를 통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바)는 기술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 즉 정보의 편향, 정보 격차, 경제적 불평등 확대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사)는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두 제시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간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서로 보완되는 지점을 파악하여 하나의 논지로 묶어내야 한다. 제시문 (바)와 (사)의 연결고리는 기술 사용에 따른 위험성이므로, (바)는 (사)가 예견해야 한다는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사)는 (바)와 같은 기술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예견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두 논지를 통합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제시문의 논리적 연계성과 보완성을 찾아내어 예시 답안처럼 서술한다면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KEYPOINT

- 제시문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기
- 위에서 파악한 기준들을 각각 적용하여 대상을 평가하기

예시 답안

(아)에서 인간은 복제 인간의 장기를 반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신체를 관리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자)에 제시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장자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인간에게 행복과 쾌락을 주는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이 되는지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따르면 (아)의 인간의 행위는 복제 인간을 희생시켜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한편, 장자는 만물은 자연적 본성을 갖고 있고 동등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아)의 인간은 복제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416자)

해설

[문제 3]이 요구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주어진 제시문을 읽고 평가 대상으로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평가 기준으로서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고 각 입장에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먼저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와 '공리주의와 장자의 입장'을 정확하게도 압축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시문을 읽으면서 관련된 핵심 어구를 파악하고, 이를 본인의 언어로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이 복제 인간에게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장기 이식", "반복적 수술", "장기 보호", "행동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등과 같은 핵심 어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를 한 문장으로 서술해야 한다. 예컨대, 예시 답안에 서술된 바와 같이, "인간은 복제 인간의 장기를 반복적으로 이식하기 위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신체를 관리한다."로 표현할 수 있다. 공리주의 입장은 "결과론적 윤리", "행복", "쾌락",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 "결과의 효용성", "더 많은 공리" 등과 같은 핵심 어구들을 활용하여, 장자의 입장은 "만물제동", "자기중심적 사고", "인정", "평등" 등의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 대상과 평가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면, 그 다음은 공리주의와 장자의 관점에서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단순히 공리주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하다 식으로 서술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라는 맥락에 적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즉, 결과론적 윤리인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는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결과론적 이익에 초점을 두고 서술해야 한다. 예시 답안처럼,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목숨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것을 강조하는 장자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복제 인간을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일반론적 관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평가의 근거를 제시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다 파악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답안으로 엮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답은 주어진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주어진 문제는 공리주의 입장과 장자의 입장에서 각각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병렬적 서술 방식을 취하면 된다. 예시 답안처럼, 평가 대상이 되는 '복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해주고, 그 다음 '공리주의 입장에 대한 요약과 공리주의 입장에 근거한 평가', '장자의 입장에 대한 요약과 장자의 입장에 근거한 평가를 순차적으로 제시한다면 가독성이 높은 문단 구성이 될 것이다.

채점 기준

[문제 1]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계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 (32점)		
	② 논리적 구성 (3점)과 결론 제시 (5점)		

[문제 2]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와 (마)의 논지를 파악한 후 (마)에 근거하여 (라)의 견해를 비판했는지 평가 (20점)		
	②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라)를 보완하는 접근법을 제시했는지 평가 (20점)		

[문제 3] 채점 기준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제시문 (아)에서 인간이 복제 인간을 대하는 행위를 파악한 경우 (4점)		
	② 제시문 (자)의功利주의와 장자의 관점에서 제시문 (아)의 인간이 복제 인간을 대하는 행위를 각각 평가한 경우 (16점)		

4. 2020학년도 모의논술: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아 정체성이란 ‘나 자신에 대한 통합된 관념’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의 성격, 취향, 관심, 능력, 가치관 등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이 지속적이고 통합적일 때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아는 이미지나 메시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변적이며 다중적이다. 여러 개의 아이디나 대화명, 아바타 등을 사용하면서 나이, 성별, 인종 등 신분이나 성격 등을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대로 자아를 구성하고, 없애고, 재구성하다 보면 지속적이고 통일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현실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속성의 사이버 자아들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사이버 자아가 마치 자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한 폭력적인 행동을 실제 현실에서 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자아로 인해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은 가치관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행위자가 구속감을 훨씬 적게 느끼고 긴장감이 없어,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탈억제 심리가 잘못 작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즉 사이버 자아를 통해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거친 말을 사용하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을 여과 없이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주 하다 보면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나) 기차가 등장하자 사정은 달라졌다. 철도가 나타날 무렵, 서양에서는 우편 마차가 가장 빠른 교통편이었다. 그레 봤자 마차의 속도는 시속 17킬로미터 정도였다. 기차는 시간당 60킬로미터를 넘게 달린다. 그만큼 철도가 놓인 도시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이제 시간은 제각각이어서는 안 되었다. 마차나 배는 마주치면 서로 비켜 가면 된다. 그러나 기차는 다르다. 철로 위에서 기차끼리 마주치면 대형 사고가 된다. 그렇다고 철로를 한정 없이 새로 깔 수도 없다.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차끼리 마주치지 않으려면 여러 곳의 시간이 같아야 한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할수록 여러 도시는 같이 움직여야 한다. 예전에는 농사짓고 물건을 만드는 일이 대부분 한동네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철도가 놓인 다음에는 달랐다. 예컨대 아침에 다른 도시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날짜에 맞추어 조립하여 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 마을 식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썼다간 열차를 놓치기 일쑤다. 그러면 다른 곳까지 피해가 돌아간다. 사람들은 바짝 긴장하여 시간을 단속해야 했다.

기차가 더 많이 놓이고 세상이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모든 것을 꿰뚫는 규칙처럼 되어 갔다. ‘철도 시간’은 무지막지했다. 마차는 말이 지치는 만큼만 달린다. 말의 숨소리가 거칠면 말에게 휴식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기차는 말과 다르다. 기차는 절대 지치는 법이 없다.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멈춤도 예외도 없어야 했다. 철도가 지나가는 길이 숲이건, 사막이건, 습지가건 상관이 없었다. 출발과 도착 시간만 중요할 뿐이다. 중간의 과정이 어찌 되었건 시간은 칼같이 맞추어야 했다.

시간은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닦달하기 시작했다. 지쳤건, 힘든 일이 있었건, 모든 일은 ‘끝내기’로 한 날짜에 맞추어야 한다. 안 그러면 그때에 맞춰 일을 시작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간다. 이제 ‘시간 엄수’는 아주 중요한 도덕이 되었다.

시간이 하나가 되자 시계는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보다 식사 시간이기엔 밥을 먹는다.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기 때문이 아니라 수업 시간이 되었기에 공부한다. 쉬고 싶어서 쉬기보다는 휴식 시간이기엔 책상에서 일어선다.

(다) 이제 어디를 가나 아리바바의 참깨

주문 없이도 저절로 열리는
자동문 세상이다.
언제나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어디선가 전자 감응 장치의 음흉한 혀끝이
날름날름 우리의 몸을 핏는다 순간
스르르 문이 열리고 스르르 우리들은 들어간다.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들어가고
스르르 열리고 스르르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손은 조금씩 퇴화하여 간다.
하늘을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날개 없는 키위새
머지않아 우리들은 두 손을 잃고 말 것이다.
정작, 두 손으로 힘겹게 열어야 하는
그,
어떤,
문 앞에서는,
키위키위 울고만 있을 것이다.

(라) 인터넷은 1960년대 미국에서 군사 및 학술적 목적의 정보 교환을 위해 몇몇 컴퓨터들의 통신 네트워크를 만든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이라 칭하는 것은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정보망이다. 웹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보망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거기에 올라 있는 웹페이지, 문서, 사진 등 여러 형태를 가진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도 웹에 원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인터넷의 세계는 컴퓨터, 모뎀, 통신 케이블, 여러 소프트웨어의 복합체 이상의 그 무엇이다.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종류의 자료를 교환하면서 만들어지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에 가깝다. 미국 철학자 허버트 드레퓌스의 말처럼, 인터넷은 처음의 개발 의도와 전혀 무관하게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기술 혁신이다. 그래서 그 완성된 모습에 대한 상도 없고 그 발전의 방향도 알 수 없다. 학술 및 군사용 정보 교환이라는 최초의 목적은 이제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행위들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중략]

인터넷을 ‘정보 고속도로’라 부르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정보의 장이라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광범위한 정보의 공유는 세상을 더욱 투명한 곳으로 만들어 불합리한 억압을 없애기도 한다. 저소득층이나 저개발국에 인터넷을 보급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경제적 도약의 기

회를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독재 국가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방의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런 견해에서 비롯된다.

풍부한 정보의 보고라는 점과 더불어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터넷의 특징으로 자주 거론된다. 이전의 미디어들은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정보 공급자가 될 수 있다. 개인 홈페이지는 물론, 댓글이나 토론 게시판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모든 미디어가 인터넷에서 통합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 노르웨이의 범죄학자 매티슨은 소수가 다수를 감시하는 패놉티콘이 근대 사회의 감시의 원리로 자리 잡았던 19세기 동안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는 언론과 통신 기술이 발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시놉티콘이라고 명명했다. 패놉티콘과 달리 시놉티콘은 권력자와 대중이 동시에 서로를 보는 메커니즘이었다. 19세기 이후에 사회의 패놉티콘화가 진행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대중과 권력이 서로를 감시하는 시놉티콘도 발달했다는 것이다. 매티슨은 패놉티콘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인 역감시의 존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바로 여기에 푸코의 역사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와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제임이 분명하지만 이에 한계가 있다. 의회와 언론이 비대해지면서 이것이 원래 취지와는 다른 그 자체의 독자적인 논리를 획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권력화했다는 점이 그렇다. 권력을 행사하여 재산 모으기를 일삼는 의원,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당락에 의해 좌우되는 입법 과정은 국가가 선거철에만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척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말초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시청률 경쟁에 여념이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특정 정당과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신문에 대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텔레비전을 끄거나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일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인이나 사회의 권력자는 언론을 장악하거나 이를 잘 이용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이미 충분히 익숙해져 있다. 물론 의회와 언론이 아직 역감시를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관들은 이제 그 자체가 역감시의 대상이 된 것이다.

(바)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보의 양이 많아져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에 쉽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특정 정보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다. 지금도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 많은 정보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될까?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효율 저하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또 양적 증대에 비해 정보의 질은 그리 높아지지 않았다는 현실은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한편 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는 계층이나 기업은 사회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며, 점점 복잡·다양해지는 정보의 증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정보 격차’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컴퓨터 조작에 서투른 중년층 직장인이 컴퓨터에 대해 심리적 거부감을 느껴 결국 출근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났다. 정보 격차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보 격차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인종, 기업과 국가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애려는 노력은 정부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인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두뇌와 신경’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양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인간관계와 사고방식, 가치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불러올 위험성도 있다.

(사) 우리 시대 이전에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침해가 표면적이었으며, 자연의 확고한 균형 상태를 파괴하기에는 미약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 기술은 무한한 진보를 거쳐 자연을 파괴하였으며,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과학 기술이라는 권력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것이 인간 자신에게 불행을 끼치지 않도록 통제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을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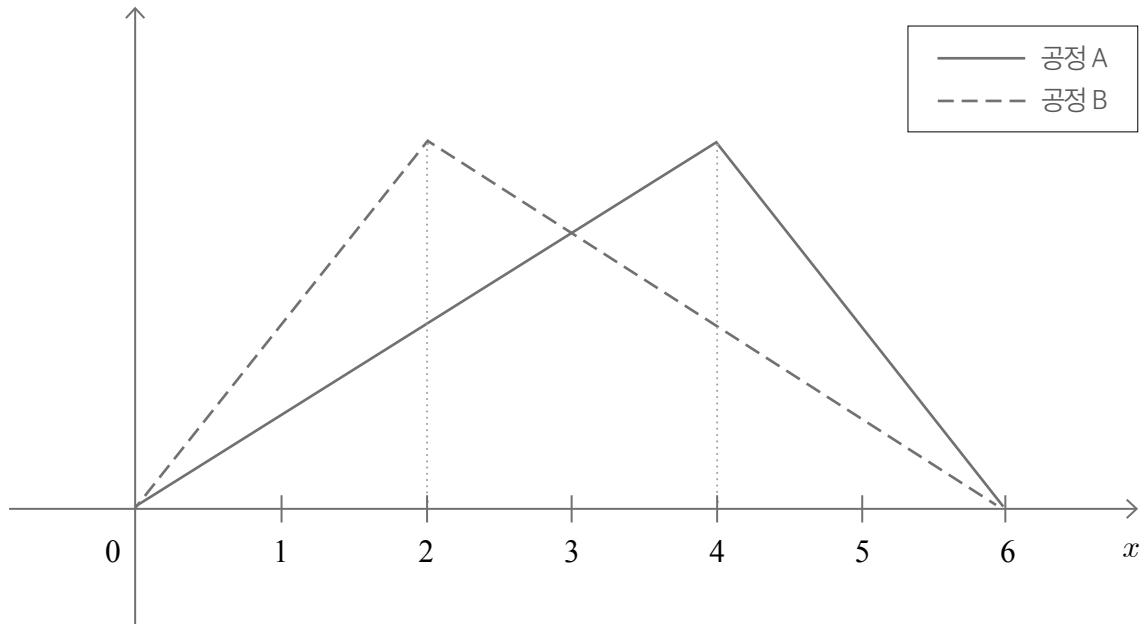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전쟁의 처참함을 알지 못하면서 평화를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존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래에 닥쳐올 공포와 재난을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두려움과 경외감을 포함하는 책임감이 행위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먼 훗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앙이나 참사를 미리 염려해 우리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 미래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문제 1] 기술 사용으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그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견해를 비판해 보고,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견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어느 공장에서 자동화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 한 개의 무게를 X (단위: g)라고 할 때, 연속확률변수 X 가 가지는 값의 범위가 $0 < x \leq 6$ 이다. 만약 $x \leq 1$ 또는 $x \geq 4$ 이면 불량품으로 판정되고, 처리 비용이 발생된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자동화 공정 A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자동화 공정 B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두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 한 개의 무게 X 의 확률밀도함수 그래프는 아래와 같다. 또한 공정 A에서 발생하는 불량품의 처리 비용은 한 개당 4000원이다. 제품 1000개를 생산하려고 할 때, 새로운 공정 B의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이 공정 A의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 이하이면 공정 B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때 새로운 공정 B를 도입할 수 있는 불량품 한 개의 처리 비용의 최댓값을 구하시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제시문 출전

- 「III-1-4 정규분포」,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140-148쪽.
- 「IV-1-4 정규분포와 그 성질」, 이준열 외 9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16, 153-162쪽.
- 「III-1-3 정규분포」, 신항균 외 11인, 『확률과 통계』, 지학사, 2016, 119-130쪽.
- 「III-1-3 연속확률변수와 확률분포」, 김창동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6, 132-134쪽.
- 「III-1-3 이항분포」, 정상권 외 7인, 『확률과 통계』, 금성출판사, 2016, 134-139쪽.
- 「IV-1-3 이항분포와 그 성질」, 이준열 외 9인, 『확률과 통계』, 천재교육, 2016, 147-152쪽.
- 「III-1-2 이항분포」, 신항균 외 11인, 『확률과 통계』, 지학사, 2016, 113-118쪽.
- 「III-1-2 이항분포」, 김창동 외 14인, 『확률과 통계』, 교학사, 2016, 125-130쪽.

예시 답안 및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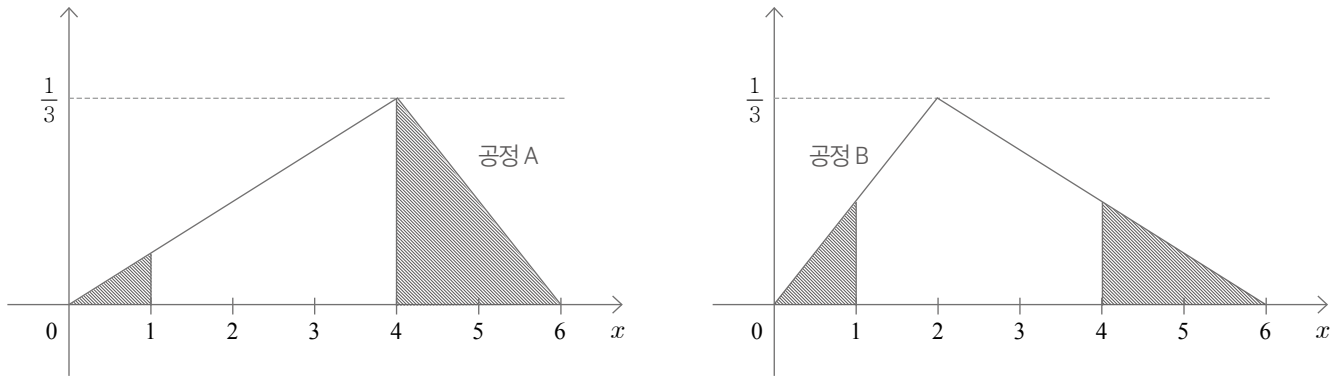
[문제 1]과 [문제 2]는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과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

예시 답안

- 연속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와 x 축 사이의 면적은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두 확률밀도함수 그래프의 높이는 $\frac{1}{3}$ 이 된다. 이때 공정 A와 B에서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각각 계산할 수 있다.

$$p_A = \frac{3}{8}, p_B = \frac{1}{4}$$



- 공정 A에서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Y_A 라고 하면 Y_A 는 이항분포 $B(1000, \frac{3}{8})$ 을 따르고,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은 $4000Y_A$ 가 된다. 이때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E[4000Y_A] = 4000E[Y_A] = 4000 \times 1000 \times \frac{3}{8}$$

- 공정 B에서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Y_B 라고 하면 Y_B 는 이항분포 $B(1000, \frac{1}{4})$ 을 따르고, 불량품 한 개의 처리 비용이 C_B 일 때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은 $C_B Y_B$ 가 된다. 이때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은 다음과 같다.

$$E[C_B Y_B] = C_B E[Y_B] = C_B 1000 \times \frac{1}{4}$$

- 공정 B의 불량품 처리 비용의 기댓값이 공정 A의 불량품 처리 비용의 기댓값 이하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되어야 한다.

$$C_B 1000 \times \frac{1}{4} \leq 4000 \times 1000 \times \frac{3}{8}$$

$$\Rightarrow C_B \leq 6000$$

- 새로운 공정 B를 도입할 수 있는 불량품 한 개의 처리 비용의 최댓값은 6000원이다.

문제 출제 의도

- 본 문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을 이해하고 그에 따르는 확률변수의 분포를 유도하는 것을 요구한다.
- 주어진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상황에 맞는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주어진 확률을 토대로 이항분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르는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풀이 단계

1.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잘 이해하여 높이를 올바르게 계산한다.
2. 두 공정 A, B에서의 불량품이 발생할 확률을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올바르게 계산한다.
3. 두 공정 A, B에서 각각 100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이해한다.
4. 두 공정 A, B에서 발생하는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을 이항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여 올바르게 계산한다.
5. 두 기댓값을 올바르게 비교하여 최댓값을 계산한다.

채점 기준

[문제 1]과 [문제 2]는 '2020학년도 모의논술 인문사회계열' 과 동일하므로 해당 부분을 참조할 것.

[문제 3] 채점 기준

- 확률밀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 높이를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4점
- 공정 A에서의 불량품의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3점
- 공정 B에서의 불량품의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3점
- 공정 A에서의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4점
- 공정 B에서의 불량품 처리에 대한 총비용의 기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4점
- 4, 5번에서의 값을 비교하여 최댓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2점

V.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072
2. 경영경제계열	084
3. 인문사회계열 II	095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1. 인문사회계열 I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녀가 용왕 사는 쏘(沼) 있는 천곡*에 오기가 힘들어 그렇지 일단 오기만 하면 용왕은 최단 시간에 백발백중 아들을 점지한다.’는 전설대로 일곱 달도 지나지 않아 처녀는 아이를 낳았다.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녀가 어떤 연고로 황만근에게 시집을 왔는지 황만근은 물론 처녀나 시어머니 모두 입을 열지 않았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처녀의 친절에서 사람이 찾아올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집을 나온 전말을 샅샅이 알게 되었던 데다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서 황만근이 없는 데서는 애깃거리가 그것뿐인 듯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은 지 삼칠일이 되던 날,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처녀는 여전히 처녀였다. 총각 황만근은 아들을 강보에 싸안고 젓동냥을 하러 신대 1리에서 3리까지 매일 돌아다녔다. 아이는 몸무게가 열근이 넘어서도 아버지에게 업히거나 아버지의 경운기에 실려 다니며 사람과 소의 젓을 얻어먹었다. 집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손 하나 까딱할 리 없었다. 모든 건 황만근의 책임이었고 일이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짚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장*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얻어 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손가락을 대 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움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궂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 * 천곡: 내와 골짜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포장: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 염습: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는 일.
- * 산역: 시체를 문고 뉘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나) 칼뱅은 신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워,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며, 인간의 직업 노동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생활하여 직업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보여 주는 징표라는 것이다.

칼뱅 역시 루터처럼 중세 수도사의 탈세속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삶보다는 현세의 직업에 충실하며 금욕적이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욕적인 삶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직업에 근면·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재산 축적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한 인간이 종교적인 구원을 얻고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되었고,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다) 긴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터를 돌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모조록 그해의 여름이 그러했던 생각이다. 주유소에선 시간당 천오백 원을, 편의점에선 천 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 때완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편의점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말했지만, 이천 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글썄 천 원이라니. 덩기만 덩고, 짜디짤, 지구.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어떠냐? 좋아요. 편의점 알바 역시 코치 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릴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냐? 푸시업이라뇨? 팔 굽혀 펴기 말이다. 무조건 잘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페이가 세. 시간당 삼천 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삼천 원이요? 앞뒤 썰 것도 없이, 시간당 삼천 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좋구말구요.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 힘이 세진다는 것,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역에 나가 ‘한 따까리’ 하면 그만이란 거지. 깔끔해. 공사 소속이니 지불 확실하지,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코치 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것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유는 삼천 원이었다. 요는 짧고 굵게 번다, 이거군요. 그것이 나의 산수다. 웃건 말건, 세상엔 그런 산수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있게 마련이다.

미안하구나.

아버진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들을 만했는데, 결국 들으나 마나가 돼 버린 지 오래다. 나이 마흔다섯에 시간당 삼천오백 원, 즉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여하튼 무슨 상사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중학생 때의 일인데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이었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이였다.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둡한 복도와, 형광등과, 철이 벗겨진 목조의 문. 혹시 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 온 얼굴의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

로 사무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 버렸다.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혹은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 푸시맨: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을 지하철 안으로 밀어 넣어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

(라) 벽을 붙이고 지붕 올리는 일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입주를 했는데 그날은 바로 7월 4일이었다. 벽의 판자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빈틈없이 맞붙였기 때문에 비는 조금도 새지 않았다. 벽을 붙이기에 앞서 두 수레분의 돌을 숲속 호숫가에서 언덕 위까지 팔에 안아 나른 후, 집 한 모퉁이에 굴뚝의 토대를 쌓았다. 나는 가을 내내, 밭일을 한 뒤 굴뚝 작업을 했다. 추위 때문에 불이 필요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은 아침 일찍 집 밖 한테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더 편하고 재미있는 취사 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빵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비바람이 불 때는, 불 위에 판자 몇 장을 세워 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나는 굴뚝을 완성했다. 그리고 비가 썰 염려는 없지만, 사방의 외벽에다가 널빤지들을 대었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통나무를 처음 다듬을 때 켜낸 들쭉날쭉한 생나무여서 대패로 옆을 반듯하게 밀어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빈틈없이 널빤지를 대고 석회를 바른 집 한 채를 갖게 되었다. 집은 길이가 15피트, 폭이 10피트, 그리고 기둥의 높이가 8피트였는데 다락방과 벽장이 있고, 양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하나씩 있었으며 뚜껑 문도 두 개 있었다. 출입문은 한쪽 끝에 있고 그 맞은편에 벽들로 된 벽난로가 있었다. 나는 이 집을 짓는 데 든 정확한 건축 비용을 따져 보았다.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했으니 노임은 제외했고,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세로 계산했다. 합계 28달러 12½센트. 이것이 내가 사용한 자재의 전부이다. 나는 내 통나무집 바로 옆에 자그마한 헛간도 하나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남은 자재를 주로 썼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직도 우리는 개미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개미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일 것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가 되도록 두지 마라. 문명 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는 구름과 태풍과 그리고 천 가지하고도 한 가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목표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측 항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뛰어난 계산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사람은 국가가 사업하고 열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통신하며 한 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아무런 의아심도 품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의 수고를 막아 준다고 하면서 오늘 천 바늘을 꿰매고 있다. 일, 일,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마)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아렌트 여사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자가 자의적인 활동인데 반해서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활동이다. 전자의 활동을 창조적이라 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기계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이 ‘작업’으로 불릴 수 있고 어떤 일이 ‘고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일이 ‘작업’으로서의 일은 아니다. 어떤 일은 부정적인 뜻으로서의 ‘고역’이기도 하다. 회초리를 맞으며 노예선을 짓는 노예들의 피땀 묻은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기는커녕 그들을 짓밟은 ‘고역’이다. 위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조건하에 타당치 않게 박한 보수를 받고 무리한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일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고역이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 노고와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한 학자가 하는 지적인 일도 경우에 따라 고역의 가장 나쁜 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도 경우에 따라 직업*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을 구별하는 근본적 기준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시키는 것이냐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율성에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일, 똑같은 고통스러운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력의 집중도 일하는 당사자의 주체적 사고방식에 따라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일 수 있다.

* 직업: 능력이나 적성에 알맞은 직업.

(바)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웅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사)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효율 임금 이론이다. 즉, 임금이 높으면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한 기업은 일부러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게끔 하기도 한다. 1914년 1월,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생산직에서의 높은 이직률로 골머리를 앓던 헨리 포드는 직원들의 일당을 그 당시 평균 임금의 두 배인 5달러로 올렸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 이 같은 임금 상승 이후에 포드의 자동차 회사는 14% 적은 노동자들로 일일 자동차 생산량을 15% 올렸다고 보고하였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근로자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아) 토포러(torporer)는 매우 긴 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토포러들은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이 년 동안 먹지도 깨지도 않은 채 내내 잠만 잔다. 사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잠이 들고 또 아무 때나 일어난다. 당연히 굴을 파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몸속에 과도한 지방을 축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곰이 아닌 것이다. “혹시 냉동 인간을 말하는 건가요?”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잡니다.”

시간이 곧 돈으로 환금되는 21세기에 토포*는 재앙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기도 하다. 가스 설비 부품 회사의 사장인 허 씨는 토포 예찬론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동 시장에 걸려 있는 마지막 플랜트 부품 계약이었는데, 말 그대로 회사의 사황이 걸려 있었죠. 무척 바빴어요. 직원들과 관계도 나빠졌고요. 야단치고, 싸우고, 성질도 많이 냈죠. 직원들이 제 마음만큼 안 따라 주더군요. 야속했어요. 불안이 엄습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점점 잠을 자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몸은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상하게 누우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 같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어요. 영국이 기술을 대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합작 회사가 계약을 따냈거나 봐요. 기술력, 가격 둘 다에서 참패였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짐을 챙겼어요. 예전에 낚시하러 다닐 때 사 둔 산장이 있었거든요. 뭐, 거창한 산장은 아니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갔어요. 어찌나 울었는지 울다가 그만 탈진이 되어 버렸어요. 오두막 한 쪽에 짚단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백칠십이 일 동안.”

“몸은 어떻던가요?”

“상쾌했어요.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당연히 엉망이겠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고 연락도 안 되니.”

* 토포: 무기력, 흥미를 뜻하는 말이지만, 생물학적 용어로는 온혈 동물의 동면을 뜻함.

(자) 런던이나 몇몇 지방에서는, 목수는 자신의 정력이 왕성한 상태를 8년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성과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기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그리고 임금이 보통보다 높은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농업 노동에서도 나타난다. 거의 모든 종류의 수공업자는 특수한 작업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사인 라마치니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썼다. 우리는 우리의 사병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병들이 어떤 특정 작업에 고용되어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불될 때, 장교들은 사병들이 성과급에 따르더라도 매일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벌 수 없다고 명문화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규정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상호 경쟁과 더 많이 벌려는 욕망 때문에 사병들은 과로하고, 이 과로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주일 중 나흘 동안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것이 나머지 사흘을 빈둥거리는 것의 진정한 원인인데도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간에 계속해서 며칠간 많은 노동을 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 욕구는 폭력 또는 어떤 강력한 필요성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 한 거의 억제할 수 없다. 이 휴식에 대한 욕구는 본성의 요구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때로는 편히 쉬는 것에 의해, 때로는 유흥과 오락에 의해, 그 요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흔히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며, 거의 언제나 조만간 특유한 직업병을 유발하게 된다. 적당

히 일함으로써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 년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모든 업종에서 판명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차) 여가라는 것을 단순히 ‘노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자아 성장,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유 있는 삶의 영위, 여가 활동을 통한 도전 정신의 만족감 부여,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 자아 존중감의 유지 등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가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잘못된 여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릇 산업 사회에서는 노동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가 전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의 시대다. 앞으로는 창의력에 기초한 ‘일하듯 놀고 놀듯이 일하는 사회’가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마)와 (사)를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20점, 400-420자]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1. 평가 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0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0학년도 인문사회계열 I 논술 핵심 키워드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고전, 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일'(노동, 직업, 아르바이트)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력, 2)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주어진 제시문의 논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특정 개념을 적용하여 '일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없어 보이는 텍스트의 논지를 통합하여 '바람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도출해 내는 유추적 사고력, 4)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의 '피로사회'에서 휴식의 필요성과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모색하는 대안 제시 능력, 5)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6)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일'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이 일에 관해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그 일을 통해 체현되는 '삶의 방식'(태도)을 찾아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추상적인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함의된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적 해석력과 2) 시 텍스트 속에 묘사된 이상적인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과 방안을 스스로 찾아 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과 연관된 특정한 이론적 쌍 개념('작업'과 '고역')을 근거로 대안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 자급자족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스스로 정의해 보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텍스트에서 묘사된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과 제도적 방안을 다각도에서 타진해 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특정한 이론이나 주장을 활용하고 적용하여 문학 텍스트 속에 묘사된 어떤 상황이나 상태의 원인을 치밀하게 분석하는 능력과 2) 이런 원인 파악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서로 다른 논지를 견지하는 텍스트를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모색하는 대안 제시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자본주의 '피로사회'에서 사람들이 과로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명한 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휴식의 필요성과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방향이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조현설 외, 『국어 II』, 해냄에듀, 2014(2016), 44-55 쪽.
- 제시문 (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현대적 의미」,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4(2017), 152 쪽.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 박병기 외, 『윤리와 사상』, 지학사, 2014(2016), 172-174 쪽.
- 제시문 (다):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박종호 외, 『문학』, 창비, 2014(2016), 25-28 쪽.
- 제시문 (라): 소로, 「월든」, 한철우 외, 『고전』, 교학사, 2014(2016), 148-153 쪽.
소로, 「월든」, 김종철 외, 『고전』, 천재교육, 2014(2017), 99-102 쪽.
- 제시문 (마): 박이문, 「일」, 윤여탁 외, 『국어 I』, 미래엔, 2014(2016), 214-217 쪽.
- 제시문 (바): 정약용, 「보리타작」, 김윤식 외, 『문학』, 천재교육, 2014(2016), 350 쪽.
- 제시문 (사): 「효율 임금 이론: 임금의 크기가 노동의 질을 결정한다」,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2014(2015), 54 쪽.
- 제시문 (아): 김인수, 「캐비닛 - 토포라」, 우한용 외, 『문학』, 비상교과서, 2014(2017), 314-319 쪽.
- 제시문 (자): 스미스, 「국부론-노동의 임금」, 정민 외, 『고전』, 해냄에듀, 2014(2016), 67-72 쪽.
- 제시문 (차): 「일과 여가의 균형의 중요성」, 이동환 외, 『사회』, 천재교육, 2014(2017), 129 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 II』(해냄에듀, 2016)에 실린 성석제의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아들을 얻게 된 과정과 가족과 동네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일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황만근이 우직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2017)에 실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현대적 의미」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지학사, 2016)에 실린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중 칼뱅의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며 근면 성실한 생활을 통한 직업에서의 성공을 신의 구원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하는 직업 소명설을 통해 신앙과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우리의 일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6)에 실린 박민규의 소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주인공인 고등학생 '나'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된 아버지의 초라한 초상을 직면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정신적인 것 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즉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돈의 가치로만 계산하는 삶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고전』(천재교육, 2017)에 실린 소로의 「월든」의 「숲 생활의 경제학」 일부와 고등학교 『고전』(교학사, 2016)에 실린 소로의 「월든」의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일부를 통합하여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소로가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들어가 손수 오두막 집을 짓는 과정과 자신이 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는 부분이다. 인공한 이 제시문을 통해, 문명 사회에서 불필요한 일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소로의 통렬한 비판 의식과 그 대안으로서 자연에 회귀하여 자급자족하며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I』(미래엔, 2016)에 실린 박이문의 「일」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특히 정치 철학자 아렌트 여사가 제시한 '작업'과 '고역'이라는 일의 구별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짚어 보게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6)에 실린 정약용의 시 「보리타작」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에는 노래를 주고 받으며 함께 신나게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노동 현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채 기계처럼 일하는 현대인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이상적인 일의 모습은 무엇인지 반추해 보게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2015)의 「효율 임금 이론: 임금의 크기가 노동의 질을 결정한다」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생산성이 임금 크기를 결정한다는 전통적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을 결정하므로 임금을 높일수록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효율 임금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 임금 등 경제적 유인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문학』(비상교과서, 2017)에 실린 김언수의 소설 『캐비닛 - 토포르』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매우 깊은 잠에 빠져드는 사람을 일컫는 ‘토포르’에 대한 소개와 허 씨의 사례를 통해 토포에 빠지게 되는 과정까지를 묘사하는 글로, 내적 불안과 불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모습을 통해 토포가 아닌 다른 형태의 휴식이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고전』(해냄에듀, 2016)에 실린 스미스의 「국부론-노동의 임금」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노동의 보수인 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노동자의 임금 상승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 즉 근면의 강조와 성과급 체계 속에서의 과로를 통해 휴식의 욕구를 외면함으로써 직업병에 이르게 되는 부작용을 지적하여 휴식의 필요성과 이것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제시문 (차)는 고등학교 『사회』(천재교육, 2017)에 인용된 「일과 여가의 균형의 중요성」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여가의 의미를 설명하며 여가는 단순히 ‘노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중요한 여러 가지 가치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일과 놀이(여가, 휴식)의 분리를 넘어 일과 놀이가 통합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간의 본질을 노동을 중시하는 도구적인 인간 ‘호모 파베르’에서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설파하고 있다.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는 여러 가지 동기로 일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가)의 동기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족을 돌보고 마을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숙련되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타난다. (나)에서 직업을 갖는 이유는 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을 현세에서 실현하여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런 신념에서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서 부지런하고 검소한 삶이 나타난다. (다)의 일의 계기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현실인식이다. 이런 자각으로 돈 되는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모습에서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삶이 보인다. (라)에서 일의 계기는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문명사회를 떠나 주체적 삶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작은 기쁨을 느끼며 자급자족하는 모습에서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에만 매진하는 간소한 삶이 드러난다. 따라서 책임감, 종교적 믿음, 현실자각, 대안 모색 등의 다양한 동기에 의해 성실함, 금욕과 근면, 이해타산, 소박함 등의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마)와 (사)를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에서 아렌트는 일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했다. 작업은 자의적, 창조적이고 고역은 타의적, 기계적인 특징이 있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구분은 자율성의 여부에 따른 인간 존엄성 구현의 가능성에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라)의 일은 육체적 노동이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의 방식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면에서 자의적, 창의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일은,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대안적 삶을 주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바)에는 사람들이 함께 흥겹게 일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조건을 (마)와 (사)에서 찾으면, 개인적 차원의 주체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어우러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고역이 아닌 보람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주체적으로 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물론, 사기 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후한 임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바)의 모습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567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20점, 400-420자]

(아)의 허 씨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에 성공하기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동료 간 갈등, 심리적 불안과 불면 등이 낳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토포 상태에 빠졌다. 이 원인을 (자)로 설명하면, 허 씨는 성과에 대한 욕망으로 휴식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외면하여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자)와 (차)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휴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재충전으로서의 휴식을 넘어, 여가 생활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높일 뿐 아니라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과 놀이가 통합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여가가 삶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417자)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동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역할(양육, 가족 부양, 마을일 등)을 진심을 다해 완수하려는 책임감. (4점)

방식: 가족을 돌보고 마을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숙련되게(전문적으로) 잘 처리하는 모습에서 매사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남. (4점)

(나) 동기: 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을 현세에서 실현하여 구원받기 위함. (4점)

방식: 직업에서의 성공(합법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서 부지런하고(근면) 검소한(절제된, 금욕적인) 삶이 나타남 (4점)

(다) 동기: 초라하고 서글픈 아버지의 모습을 직면하고 돈의 중요성(필요성)을 깨달은 현실인식, 자각. (4점)

방식: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면 마다하지 않고 전전하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계산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남. (4점)

(라) 동기: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문명사회를 떠나 주체적 삶을 실천하기 위함. (4점)

방식: (자연 속에서 통나무집을 손수 지으며)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자급자족하는 모습에서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에만 매진하는 소박하고 간소한 삶(생태적 삶)이 드러남. (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 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예시]

- 서론: 제시문 (가)~(라)는 여러 가지 동기로 일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 결론: 따라서(결론적으로) 책임감, 종교적 믿음, 현실자각, 대안모색 등의 다양한 동기에 의해 성실한 삶, 금욕적인 삶, 소박한 삶이나 이해타산적 인(순응적인) 삶의 방식도 나타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동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파악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일의 의미를 심도 있게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마)의 논지: 아렌트에 의하면 작업은 자의적, 창조적인 일, 고역은 타의적, 기계적인 일이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구분은 자율성의 여부에 따른 인간 존엄성 구현의 가능성에 있음. (5점)
- ② (마)의 관점을 적용하면 제시문 (라)는 육체적 노동이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의 방식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면에서 자의적, 창의적 작업임. (10점)
- ③ 제시문 (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생태적 삶을 주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5점)

2) (바)에 나타난 일의 모습을 파악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바)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 사람들이 함께 흥겹게 일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장면임. (6점)
- ② 제시문 (마)를 통한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고역이 아닌 보람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주체적으로 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5점)
- ③ 제시문 (사)를 통한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 제도적 차원에서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물론, 사기 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후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5점)
- ④ 제시문 (마)와 (사)를 종합하여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을 제시함: 개인적 차원의 주체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어우러져야 함. (4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논지를 근거로 (라)의 일의 의미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제시문 (마)의 논지만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3~5점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라)의 일을 작업으로 설명하되, 인간 존엄성 구현의 측면을 논의하지 않는 경우	6~15점
		제시문 (마)의 논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라)의 일을 작업으로 설명하고 인간 존엄성 구현의 측면까지 충실히 논의한 경우	16~20점
	② (바)에 나타난 일의 모습을 파악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바)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평가(20점)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만 정확히 제시한 경우	3~6점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 중 한가지만 사용하여 실현 조건을 제시한 경우	7~11점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 모두를 사용하여 실현 조건을 제시한 경우	12~16점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 경우	17~2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을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는지 평가한다. (10점)

① 허 씨가 어떻게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파악한 경우. (5점)

[예시]

(아)에서 허 씨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하면서 동료 간의 불화, 심리적 불안과 불면 등이 낳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토포 상태에 이르렀다.

② 제시문 (자)의 논지를 활용해 '허 씨'의 상태를 설명하였는지를 파악한 경우. (5점)

[예시]

허 씨는 성과에 대한 욕망으로 휴식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외면하여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 (아)의 '허 씨'가 '토포'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는지를 평가한다. (10점)

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재충전으로서의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과 함께 휴식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고 일과 여가를 조화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통합하여 모두 언급한 경우. (10점)

② 더 많은 일을 위한 재충전으로서의 휴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만을 언급한 경우. (5점)

③ 휴식을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고 일과 여가를 조화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만을 언급한 경우. (5점)

[예시]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자)와 (차)를 통합하여 제시하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건강을 해치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일정한 휴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재충전으로서의 휴식을 넘어, 여가 생활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아 존중감을 높일 뿐 아니라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일과 놀이가 통합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여가가 삶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20점)	①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된 상황 (자)의 논지를 활용하여 설명 (10점)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른 상황을 정확히 제시	2-5점
		(자)의 논지를 잘 활용하여 '허 씨'의 상태를 정확히 설명	2-5점
	② (아)의 '허 씨'가 '토포'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한 방안을 제시문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는지를 평가 (10점)	(자)와 (차)의 논지 중 하나만을 활용	3-5점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	8-10점

2. 경영경제계열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녀가 용왕 사는 쪼(沼) 있는 천곡*에 오기가 힘들어 그렇지 일단 오기만 하면 용왕은 최단 시간에 백발백중 아들을 점지한다.’는 전설대로 일곱 달도 지나지 않아 처녀는 아이를 낳았다.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녀가 어떤 연고로 황만근에게 시집을 왔는지 황만근은 물론 처녀나 시어머니 모두 입을 열지 않았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처녀의 친절에서 사람이 찾아올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집을 나온 전말을 살살이 알게 되었던 데다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서 황만근이 없는 데서는 애깃거리가 그것뿐인 듯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은 지 삼칠일이 되던 날,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처녀는 여전히 처녀였다. 총각 황만근은 아들을 강보에 싸안고 젓동냥을 하러 신대 1리에서 3리까지 매일 돌아다녔다. 아이는 몸무게가 열근이 넘어서도 아버지에게 업혀거나 아버지의 경운기에 실려 다니며 사람과 소의 젓을 얻어먹었다. 집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손 하나 까딱할 리 없었다. 모든 건 황만근의 책임이었고 일이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않는가 하면 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짚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꿇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장*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얻어 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 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움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궂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 천곡: 내와 골짜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포장: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염습: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는 일.

* 산역: 시체를 문고 뒀을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나) 칼뱅은 신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워,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며, 인간의 직업 노동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생활하여 직업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보여 주는 징표라는 것이다.

칼뱅 역시 루터처럼 중세 수도사의 탈세속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삶보다는 현세의 직업에 충실하며 금욕적이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욕적인 삶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직업에 근면·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재산 축적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한 인간이 종교적인 구원을 얻고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되었고,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다) 긴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터를 돌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모조록 그해의 여름이 그러했던 생각이다. 주유소에선 시간당 천오백 원을, 편의점에선 천 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 때완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편의점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말했지만, 이천 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글썄 천 원이라니. 덩기만 덩고, 짜디짤, 지구.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어떠냐? 좋아요. 편의점 알바 역시 코치 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밖에는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릴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썬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냐? 푸시업이라뇨? 팔 굽혀 펴기 말이다. 무조건 잘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페이가 세. 시간당 삼천 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삼천 원이요? 앞뒤 썰 것도 없이, 시간당 삼천 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좡구말구요.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 힘이 세진다는 것,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역에 나가 ‘한 따까리’ 하면 그만이란 거지. 깔끔해. 공사 소속이니 지불 확실하지,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코치 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것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유는 삼천 원이었다. 요는 짧고 굵게 번다, 이거군요. 그것이 나의 산수다. 웃건 말건, 세상엔 그런 산수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있게 마련이다.

미안하구나.

아버진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들을 만했는데, 결국 들으나 마나가 돼 버린 지 오래다. 나이 마흔다섯에 시간당 삼천오백 원, 즉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여하튼 무슨 상사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가 간 적이 있다. 중학생 때의 일인데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이었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이였다.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둡한 복도와, 형광등과, 철이 벗겨진 목조의 문. 혹시 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 온 얼굴의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로 사무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 버렸다.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혹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 푸시맨: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을 지하철 안으로 밀어 넣어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

(라) 벽을 붙이고 지붕 올리는 일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입주를 했는데 그날은 바로 7월 4일이었다. 벽의 판자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빈틈없이 맞붙였기 때문에 비는 조금도 새지 않았다. 벽을 붙이기에 앞서 두 수레분의 돌을 숲속 호숫가에서 언덕 위까지 팔에 안아 나른 후, 집 한 모퉁이에 굴뚝의 토대를 쌓았다. 나는 가을 내내, 밭일을 한 뒤 굴뚝 작업을 했다. 추위 때문에 불이 필요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은 아침 일찍 집 밖 한데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더 편하고 재미있는 취사 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빵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비바람이 불 때는, 불 위에 판자 몇 장을 세워 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나는 굴뚝을 완성했다. 그리고 비가 썰 염려는 없지만, 사방의 외벽에다가 널빤지들을 대었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통나무를 처음 다듬을 때 켜낸 들쭉날쭉한 생나무여서 대패로 옆을 반듯하게 밀어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빈틈없이 널빤지를 대고 석회를 바른 집 한 채를 갖게 되었다. 집은 길이가 15피트, 폭이 10피트, 그리고 기둥의 높이가 8피트였는데 다락방과 벽장이 있고, 양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하나씩 있었으며 뚜껑 문도 두 개 있었다. 출입문은 한쪽 끝에 있고 그 맞은편에 벽돌로 된 벽난로가 있었다. 나는 이 집을 짓는 데 든 정확한 건축 비용을 따져 보았다.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했으니 노임은 제외했고,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세로 계산했다. 합계 28달러 12½센트. 이것이 내가 사용한 자재의 전부이다. 나는 내 통나무집 바로 옆에 자그마한 헛간도 하나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남은 자재를 주로 썼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직도 우리는 개미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개미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일 것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가 되도록 두지 마라. 문명 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는 구름과 태풍과 그리고 천 가지하고도 한 가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목표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측 항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뛰어난 계산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사람은 국가가 사업하고 열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통신하며 한 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아무런 의아심도 품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의 수고를 막아 준다고 하면서 오늘 천 바늘을 꿰매고 있다. 일, 일,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마)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아렌트 여사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자가 자의적인 활동인데 반해서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활동이다. 전자의 활동을 창조적이라 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기계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이 ‘작업’으로 불릴 수 있고 어떤 일이 ‘고역’으로 분류될 수 있느냐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일이 ‘작업’으로서의 일은 아니다. 어떤 일은 부정적인 뜻으로서의 ‘고역’이기도 하다. 회초리를 맞으며 노예선을 짓는 노예들의 피땀 묻은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지는커녕 그들을 짓밟은 ‘고역’이다. 위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조건하에 타당치 않게 박한 보수를 받고 무리한 노동을 팔아야만 하는 일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고역이다. 작업

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 노고와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한 학자가 하는 지적인 일도 경우에 따라 고역의 가장 나쁜 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도 경우에 따라 직업*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을 구별하는 근본적 기준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시키는 것이냐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율성에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일, 똑같은 고통스러운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력의 집중도 일하는 당사자의 주체적 사고방식에 따라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일 수 있다.

* 직업: 능력이나 적성에 알맞은 직업.

(바) 새로 거른 막걸리 쫂릿처럼 뿌영고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웅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사)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효율 임금 이론이다. 즉, 임금이 높으면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한 기업은 일부러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게끔 하기도 한다. 1914년 1월,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생산직에서의 높은 이직률로 골머리를 앓던 헨리 포드는 직원들의 일당을 그 당시 평균 임금의 두 배인 5달러로 올렸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 이 같은 임금 상승 이후에 포드의 자동차 회사는 14% 적은 노동자들로 일일 자동차 생산량을 15% 올렸다고 보고하였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근로자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마)와 (사)를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50-570자]

-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한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 후 인턴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단계 I

필기시험을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필기시험의 점수는 평균 60점, 표준편차 10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a 점 이상일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곧바로 채용이 확정되며, 48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이 확정된다. 나머지 인턴사원들은 단계 II로 넘어가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

단계 II

회사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2개를 수행하는데, 2개 모두 성공하면 채용이 확정되고 2개 모두 실패하면 불합격이 확정된다. 또한 1개의 프로젝트만 성공한 인턴사원들은 단계 III으로 넘어가서 다시 기회를 얻게 된다(단, 각 프로젝트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성공의 확률은 각각 0.5이다).

단계 III

적성검사 시험을 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시험의 점수는 평균 80점, 표준편차 5점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이때 81점 이상일 경우 채용이 확정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 확정된다.

- [문제 3]**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인턴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단계 I에서 채용된 정규 직원 수와 단계 III에서 채용된 정규 직원 수의 비를 1:1.6으로 맞추려고 한다. 이때 단계 I의 필기시험에서 채용이 확정되는 점수 a 를 구하시오(단,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의 확률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z	$P(0 \leq Z \leq z)$
0.2	0.1
0.5	0.2
1.0	0.3
1.2	0.4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1. 평가 목표

경영경제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0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0학년도 경영경제계열 논술 핵심 키워드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문학, 고전, 사회, 윤리와 사상, 경제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일'(노동, 직업, 아르바이트)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력, 2)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그 일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라는 관점으로 주어진 제시문의 논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특정 개념을 적용하여 '일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없어 보이는 텍스트의 논지를 통합하여 '바람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도출해 내는 유추적 사고력, 4)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5)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 사건과 확률분포의 개념을 응용하여 정보를 도출해 내는 수리적 분석 능력, 6)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독해력과 2) 제시문의 내적 요소들을 다양한 맥락에 비추어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밝히고 그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네 제시문을 '일'이라는 키워드로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각각의 지문이 일에 관해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각 제시문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그 일을 통해 체현되는 '삶의 방식'(태도)을 찾아 서술하고, 이를 결론에 자신의 언어로 압축하여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추상적인 '이론적' 개념을 적용하여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함의된 의미를 찾아내는 분석적 해석력과 2) 시 텍스트 속에 묘사된 이상적인 상황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과 방안을 스스로 찾아 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일과 연관된 특정한 이론적 쌍 개념('작업'과 '고역')을 근거로 대안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 자급자족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스스로 정의해 보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텍스트에서 묘사된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조건과 제도적 방안을 다각도에서 타진해 보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이다.

[문제 3]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분포에 의한 확률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확률의 개념은 논리적 사고 및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본 문제는 임의로 설정된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의 수와 그에 따른 확률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각 상황에서의 확률에 대한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평가한다. 본 문제는 확률변수와 확률분포에 대한 기본 개념의 이해도를 평가하며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볼 수 있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조현설 외, 『국어 II』, 해냄에듀, 2014(2016), 44-55 쪽.
- 제시문 (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현대적 의미』, 박찬구 외, 『윤리와 사상』, 천재교육, 2014(2017), 152 쪽.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 박병기 외, 『윤리와 사상』, 지학사, 2014(2016), 172-174 쪽.
- 제시문 (다):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박종호 외, 『문학』, 창비, 2014(2016), 25-28 쪽
- 제시문 (라): 소로, 『월든』, 한철우 외, 『고전』, 교학사, 2014(2016), 148-153 쪽.
소로, 『월든』, 김종철 외, 『고전』, 천재교육, 2014(2017), 99-102 쪽.
- 제시문 (마): 박이문, 『일』, 윤여탁 외, 『국어 I』, 미래엔, 2014(2016), 214-217 쪽.
- 제시문 (바): 정약용, 『보리타작』, 김윤식 외, 『문학』, 천재교육, 2014(2016), 350 쪽.
- 제시문 (사): 『효율 임금 이론: 임금의 크기가 노동의 질을 결정한다』, 박형준 외, 『경제』, 천재교육, 2014(2015), 54 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 II』(해냄에듀, 2016)에 실린 성석제의 소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황만근이라는 인물이 아들을 얻게 된 과정과 가족과 동네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일하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황만근이 우직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을 통해 가족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천재교육, 2017)에 실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현대적 의미』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지학사, 2016)에 실린 『프로테스탄티즘과 윤리』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중 갈뱅의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직업은 신이 내린 소명이며 근면 성실한 생활을 통한 직업에서의 성공을 신의 구원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조하는 직업 소명설을 통해 신앙과 종교적 신념이 어떻게 우리의 일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문학』(창비, 2016)에 실린 박민규의 소설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를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주인공인 고등학생 '나'가 힘겹게 살아왔지만 결국 인생의 낙오자가 된 아버지의 초라한 초상을 직면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워나가는 주인공의 모습에서 정신적인 것 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 즉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돈의 가치로만 계산하는 삶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고전』(천재교육, 2017)에 실린 소로의 『월든』의 '숲 생활의 경제학' 일부와 고등학교 『고전』(교학사, 2016)에 실린 소로의 『월든』의 '나는 어디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일부를 통합하여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은 소로가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들어가 손수 오두막 집을 짓는 과정과 자신이 왜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성찰하는 부분이다. 인용한 이 제시문을 통해, 문명 사회에서 불필요한 일에 매달려 인생을 허비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소로의 통렬한 비판 의식과 그 대안으로서 자연에 회귀하여 자급자족하며 소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I』(미래엔, 2016)에 실린 박이문의 『일』을 출제의도에 부합되게 일부 재편집한 글이다. 이 제시문에는 특히 정치 철학자 아렌트 여사가 제시한 '작업'과 '고역'이라는 일의 구별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짚어 보게 한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문학』(천재교육, 2016)에 실린 정약용의 시 『보리타작』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에는 노래를 주고 받으며 함께 신나게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노동 현상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된 채 기계처럼 일하는 현대인이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이상적인 일의 모습은 무엇인지 반추해 보게 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경제』(천재교육, 2015)의 『효율 임금 이론: 임금의 크기가 노동의 질을 결정한다』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생산성이 임금 크기를 결정한다는 전통적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을 결정하므로 임금을 높일수록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효율 임금 이론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 임금 등 경제적 유인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문제 3번 수리논술 문제에 사용된 지문은 다음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 정상권 외, 『확률과 통계』, I-1-1 경우의 수, 금성출판사, 2014(2016), 12-17쪽.
- 이준열 외, 『확률과 통계』, I-1-1 합의 법칙, I-1-2 곱의 법칙, 천재교육, 2014(2016), 12-17쪽.
- 신항균 외, 『확률과 통계』, I-1-1 경우의 수, 지학사, 2014(2016), 13-17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1-1 경우의 수, 좋은책 신사고, 2014(2016), 12-15쪽.
- 정상권 외, 『확률과 통계』, II-1-1 확률의 뜻, II-1-2 확률의 기본 성질, 금성출판사, 2014(2016), 76-88쪽.
- 이준열 외, 『확률과 통계』, III-2-1 확률의 덧셈정리, III-2-2 조건부확률과 확률의 곱셈정리, 천재교육, 2014(2016), 106-115쪽.
- 신항균 외, 『확률과 통계』, II-1-2 확률의 기본 성질, 지학사, 2014(2016), 71-76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1-2 확률의 덧셈정리, 좋은책 신사고, 2014(2016), 68-71쪽.
- 정상권 외, 『확률과 통계』, II-2-1 조건부확률의 뜻, II-2-2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금성출판사, 2014(2016), 95-104쪽.
- 신항균 외, 『확률과 통계』, II-2-1 조건부확률, 지학사, 2014(2016), 81-85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2-1 조건부확률, 좋은책 신사고, 2014(2016), 77-81쪽.
- 정상권 외, 『확률과 통계』, III-1-3 이항분포, III-1-4 정규분포, 금성출판사, 2014(2016), 134-148쪽.
- 이준열 외, 『확률과 통계』, IV-1-3 이항분포와 그 성질, IV-1-4 정규분포와 그 성질, 천재교육, 2014(2016), 147-162쪽.
- 신항균 외, 『확률과 통계』, III-1-2 이항분포, III-1-3 정규분포, 지학사, 2014(2016), 113-130쪽.
- 황선욱 외, 『확률과 통계』, III-1-3 이항분포, III-1-4 정규분포, 좋은책 신사고, 2014(2016), 107-121쪽.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가)~(라)는 여러 가지 동기로 일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가)의 동기는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족을 돌보고 마을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숙련되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타난다. (나)에서 직업을 갖는 이유는 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을 현세에서 실현하여 구원받기 위함이다. 이런 신념에서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서 부지런하고 검소한 삶이 나타난다. (다)의 일의 계기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에서 돈의 중요성을 깨달은 현실인식이다. 이런 자각으로 돈 되는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모습에서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삶이 보인다. (라)에서 일의 계기는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문명사회를 떠나 주체적 삶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작은 기쁨을 느끼며 자급자족하는 모습에서 꼭 필요한 의미 있는 일에만 매진하는 간소한 삶이 드러난다. 따라서 책임감, 종교적 믿음, 현실자각, 대안모색 등의 다양한 동기에 의해 성실함, 금욕과 근면, 이해타산, 소박함 등의 삶의 방식이 나타난다. (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마)와 (사)를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50-570자]

(마)에서 아렌트는 일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했다. 작업은 자의적, 창조적이고 고역은 타의적, 기계적인 특징이 있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구분은 자율성의 여부에 따른 인간 존엄성 구현의 가능성에 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라)의 일은 육체적 노동이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의 방식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면에서 자의적, 창의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일은,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대안적 삶을 주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바)에는 사람들이 함께 흥겹게 일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이상적인 일터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한 조건을 (마)와 (사)에서 찾으면, 개인적 차원의 주체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어우러져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고역이 아닌 보람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적업을 찾아 주체적으로 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물론, 사기 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후한 임금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면 (바)의 모습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 (567자)

[문제 3]의 예시 답안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문제 3] 위와 같은 단계를 통해 인턴사원을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단계 I에서 채용된 정규 직원 수와 단계 III에서 채용된 정규 직원 수의 비를 1:1.6으로 맞추려고 한다. 이때 단계 I의 필기시험에서 채용이 확정되는 점수 a 를 구하시오(단,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의 확률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20점, 원고지 작성법을 준수할 필요 없음]

▶ 단계 I에서 본 필기시험의 점수를 확률변수 X_1 이라고 할 때, X_1 은 정규분포 $N(60, 10^2)$ 를 따른다. 이때 단계 I에서 채용이 확정될 확률을 p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의 확률이 나온다.

$$p = P(\text{채용}) = P(X_1 \geq a) = P(Z \geq \frac{a-60}{10})$$

$$P(\text{불합격}) = P(X_1 \leq 48) = P(Z \leq \frac{48-60}{10}) = P(Z \leq -1.2) = 0.1$$

$$P(\text{단계 II 이동}) = 1 - 0.1 - p = 0.9 - p$$

▶ 단계 II에서 성공한 프로젝트의 개수를 확률변수 X_2 라고 할 때, X_2 는 이항분포 $B(2, 0.5)$ 를 따른다. 이때 단계 II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P(\text{채용}) = P(X_2 = 2) = {}_2C_2(0.5)^2(0.5)^0 = 0.25$$

$$P(\text{불합격}) = P(X_2 = 0) = {}_2C_0(0.5)^0(0.5)^2 = 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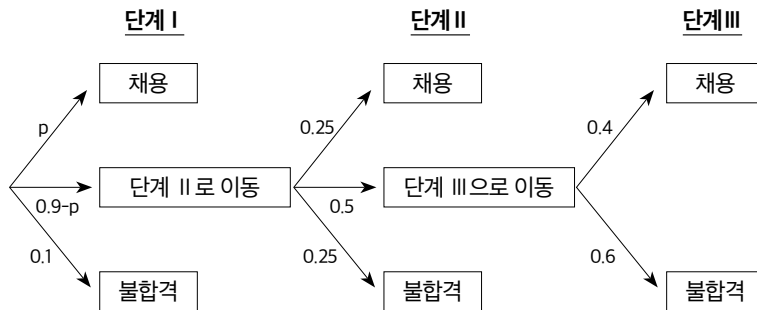
$$P(\text{단계 III 이동}) = 1 - 0.25 - 0.25 = 0.5$$

▶ 단계 III에서 본 적성검사 시험의 점수를 확률변수 X_3 이라고 할 때, X_3 은 정규분포 $N(80, 5^2)$ 를 따른다. 이때 단계 III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P(\text{채용}) = P(X_3 \geq 81) = P(Z \geq \frac{81-80}{5}) = P(Z \geq 0.2) = 0.4$$

$$P(\text{불합격}) = 1 - 0.4 = 0.6$$

▶ 따라서, 단계 I, II, III을 거치는 채용 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단계 I에서 채용이 확정될 확률은 p 이고, 단계 III까지 거쳐서 채용이 확정될 확률은 $(0.9 - p) \times 0.5 \times 0.4 = (0.9 - p)0.2$ 이기 때문에 p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6p = (0.9 - p)0.2$$

$$\Rightarrow p = 0.1$$

▶ 즉, 다음을 만족하는 a 값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사용하여 구하면 다음과 같다.

$$P(Z \geq \frac{a-60}{10}) = 0.1$$

$$\Rightarrow \frac{a-60}{10} = 1.2$$

$$a = 72(\text{점})$$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동기: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역할(양육, 가족 부양, 마을일 등)을 진심을 다해 완수하려는 책임감.(4점)

방식: 가족을 돌보고 마을의 대소사와 굶은일을 도맡아 숙련되게(전문적으로) 잘 처리하는 모습에서 매사 우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남.(4점)

(나) 동기: 신의 소명에 대한 믿음을 현세에서 실현하여 구원받기 위함.(4점)

방식: 직업에서의 성공(합법적인 부의 축적)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모습에서 부지런하고(근면) 검소한(절제된, 금욕적인) 삶이 나타남.(4점)

(다) 동기: 초라하고 서글픈 아버지의 모습을 직면하고 돈의 중요성(필요성)을 깨달은 현실인식, 자각.(4점)

방식: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면 마다하지 않고 전전하는 모습에서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계산하는 삶의 방식이 나타남.(4점)

(라) 동기: 불필요한 일로 인생을 낭비하는 문명사회를 떠나 주체적 삶을 실천하기 위함.(4점)

방식: (자연 속에서 통나무집을 손수 지으며) 작은 기쁨을 느끼고 자급자족하는 모습에서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만 매진하는 소박하고 간소한 삶(생태적 삶)이 드러남.(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 / 본론 / 결론)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즉, 글을 시작하는 도입 부분과 글을 맺는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하나의 완성된 논리적인 글로 구성하라고 요구했으므로, 답안이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3점)

② 서론을 쓰고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차이가 핵심적 표현으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5점)

[예시]

- 서론: 제시문 (가)~(라)는 여러 가지 동기로 일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 결론: 따라서(결론적으로) 책임감, 종교적 믿음, 현실자각, 대안모색 등의 다양한 동기에 의해 성실한 삶, 금욕적인 삶, 소박한 삶이나 이해타산적 인(순응적인) 삶의 방식도 나타난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각각 동기와 방식을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마)의 논지를 파악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라)의 일의 의미를 심도 있게 도출했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마)의 논지: 아렌트에 의하면 작업은 자의적, 창조적인 일, 고역은 타의적, 기계적인 일이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구분은 자율성의 여부에 따른 인간 존엄성 구현의 가능성에 있음.(5점)
- ② (마)의 관점을 적용하면 제시문 (라)는 육체적 노동이지만,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일의 방식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면에서 자의적, 창의적 작업임.(10점)
- ③ 제시문 (라)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삶의 본질을 찾기 위해 생태적 삶을 주체적으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는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짐.(5점)

2) (바)에 나타난 일의 모습을 파악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바)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 사람들이 함께 흥겹게 일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는 장면임. (6점)
- ② 제시문 (마)를 통한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강요에 의한 수동적인 고역이 아닌 보람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찾아 주체적으로 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5점)
- ③ 제시문 (사)를 통한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 제도적 차원에서는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물론, 사기 진작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후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5점)
- ④ 제시문 (마)와 (사)를 종합하여 제시문 (바)의 실현 조건을 제시함: 개인적 차원의 주체적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어우러져야 함.(4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마)의 논지를 근거로 (라)의 일의 의미를 도출했는지 평가(20점)	(마)의 논지만 정확히 제시했을 경우	3~5점
		(마)의 논지는 정확히 제시했지만 (라)의 일을 고역으로 설명하는 경우	3~8점
		(마)의 논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라)의 일을 작업으로 설명하되, 인간 존엄성 구현의 측면을 논의하지 않는 경우	11~15점
		(마)의 논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라)의 일을 작업으로 설명하고 인간 존엄성 구현의 측면까지 충실히 논의한 경우	16~20점
	② (바)에 나타난 일의 모습을 파악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고려하여 (바)의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하는지 평가(20점)	(바)에 묘사된 모습만 정확히 제시한 경우	3~6점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 중 한가지만 사용하여 실현 조건을 제시한 경우	7~11점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 모두를 사용하여 실현 조건을 제시한 경우		12~16점	
	(바)에 묘사된 모습을 정확히 제시하고 (마)와 (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 경우	17~20점	

[문제 3] 20점 만점

가) 단계 I에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경우: +5점

나) 단계 II에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다) 단계 III에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확률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라) 단계 I과 III을 비교하여 조건에 맞는 값을 올바르게 계산한 경우: +5점

※ 계산 실수로 틀렸어도 논리 전개 과정이 맞으면 해당 부분에 1~2점의 부분 점수를 부여함.

※ 각 부분에서 바르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도 답안의 완성도에 따라 총점 20점 이내에서 ±1점 추가 점수 부여 가능함.

3. 인문사회계열 II

문제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내가 다니던 중학교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서대문으로 넘어가는 언덕의 옛 경희궁 터에 있었다. 나는 아침저녁으로 이 길을 지나다녀야 했는데, 이 길가에 단골 책방이 있었다. 그곳은 얼마 크지 않은 책방이었으나 비교적 여러 종류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내 짝이었던 케이(K) 군과 더불어 방과 후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다. 당시 나는 그 책방에 있는 거의 모든 책을 읽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나를 붙잡은 작품이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였다.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빼놓고서는, 나는 나의 독서 체험과 관련하여 이야기할 뼈대가 없음을 느낀다. 이 작품은 짧은 날의 독서 체험의 핵심이자, 지금도 나의 삶을 끊임없이 간섭하고 있는 인생의 한 축복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처음 접한 것은 중학교 이학년 때였다. 이때 “파우스트”와 만난 것은 물론 우연이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곳에 있던 책 순서대로 이 책이 골라 잡혔다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파우스트”는 나에게 있어서 새삼스러운 충격도 아니었고, 유익한 의미는 더더구나 아니었다. 그나마 첫 독서에서 얻어진 감상은 파우스트는 유식한 사람, 좋은 사람, 그러면서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며, 메피스토펠레스는 무식하면서도 괴만 많고 나쁜 사람이라는 도식이었다. 그러나 그 밖의 것은 통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파우스트”와의 두 번째 만남은 대학교 일학년 때 다시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별의 별 방법을 모두 써 보아도 속수무책이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파우스트”였다. 이 책을 읽으면 잠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든 것이다. 이렇게 “파우스트”와 나는 다시 만났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하였다. 이 실패는 어렸을 때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왔다. 우선 잠을 자는 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정신은 더욱 맑아지고, 두 눈은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다. 그래서 글의 내용도 더욱 분명하게 들어왔고 이 글이 파우스트 박사와 메피스토펠레스를 대립시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사실에 나는 흥미해졌다. 그리고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에 의해 파우스트가 젊어진다는 설정 자체가 갖는 신비주의 역시 나를 혼란스럽게 했다.

“파우스트”는 이후에 독일어 원문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다. 독문과에 진학한 나로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무튼 학교에서 독일어로 읽고 번역하고 배움으로써, “파우스트”는 예전과는 다르게, 비교적 선명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파우스트의 행로가 ‘죄와 구원’이라는 인간 본질의 역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먹고사는 문제에 허덕이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헤매던 나에게 죄, 구원, 본질 따위의 단어가 우리의 물질적 실존과도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차츰 시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파우스트”는 나에게 문학, 또는 인문주의에 대한 개안*의 길이였다고 할 수 있다.

*역정: 지금까지 지나온 경로

*개안: 깨달아 아는 일

(나) 누구나 때로는 일탈적 행동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가볍고 일시적이며 쉽게 감추어질 수 있다. 이를 가리켜 ‘1차적 일탈’이라 한다. 1차적 일탈은 모르는 채 지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며, 당사자도 자신을 일탈자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일탈 행동이 일단 발견되고 세상에 알려지면 그 개인은 일탈자로 낙인찍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탈

자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일탈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그 낙인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일탈자로서의 새로운 자아 개념을 발전시켜 그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 결국, 일탈이 습관화되어 일탈 행동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이를 '2차적 일탈'이라 일컫는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형을 마치고 전과자로 낙인찍혀 나온 사람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취업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기회 획득에서 차별을 받곤 한다. 이럴 경우, 그들은 자신을 전과자로 인식하고, 재범의 길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다) 미국의 정치학자 액셀로드의 '죄수의 딜레마'라 불리는 단순한 게임에 매료되었다. 이 게임은 '물주' 한 명과 게임 참여자 두 명으로 구성되어 물주가 게임을 하는 두 상대에게 판정을 내려 이득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진행 방법은 이러했다.

내가 당신과 대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나와 당신은 '협력'과 '배신'이라고 표시된 카드를 받는다. 게임할 때 그중 하나를 뽑아 탁자 위에 얹어 놓는다. 이때 어느 쪽도 상대의 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패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의 승패는 자기가 어떤 카드를 냈는가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바로 이 점이 흥미진진한 요소이다. 카드는 양쪽 모두 두 장씩이므로 가능한 결과는 네 가지가 된다. 각각의 결과에서 얻는 이득은 아래와 같다.

결과 1		물주	결과 2		물주		
나	협력		상호 협력의 포상 \$ 300	나		배신	상호 배신의 벌 \$ 10
당신	협력		상호 협력의 포상 \$ 300	당신		배신	상호 배신의 벌 \$ 10
나	배신		배신의 유혹 \$ 500	나		협력	벌금 \$ 100
결과 3		물주	결과 4		물주		
당신	협력		벌금 \$ 100	당신		배신	유혹의 이득 \$ 500

그럼 왜 '딜레마'일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당신과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나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진행될지 상상해 보면 된다. 나는 당신이 낼 수 있는 카드가 '협력'과 '배신'이라는 카드 두 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일 당신이 '배신' 카드를 낸다면 나 또한 '배신' 카드를 내야 내가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상호 배신으로 벌을 받지만, 만일 '협력' 카드를 낸다면 나는 그 손해를 혼자서 뒤집어쓰므로 그보다는 나을 것이다. 다음에는 당신이 '협력' 카드를 낼 때를 상상해 보자. 이때도 내가 '배신' 카드를 내야 최선의 결과를 얻는다. 만일 내가 '협력' 카드를 낸다면 우리 둘 모두는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배신' 카드를 낸다면 그보다 더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당신이 어느 카드를 내든 나는 늘 '배신' 카드를 내는 것이 최선의 수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리하여 나는 나무랄 데 없는 논리로, 당신이 무엇을 내든 나는 '배신' 카드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답을 얻었다. 당신 또한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므로 이성적인 두 경기자가 만나면 둘 다 배신하여 똑같이 벌금을 물거나 낮은 이득을 얻을 것이다. 만약 '협력' 카드만 낸다면 상호 협력에 대한 비교적 높은 포상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둘 다 잘

알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게임이 딜레마이며, 지나칠 정도로 역설적이기까지 한다.

이 딜레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가? 만일 둘이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각각이 상대에게 “나는 이 기적인 큰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안심시킬 방법만 있다면, 협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단순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이처럼 신뢰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이 단순한 버전 외에 또 하나의 변형된 게임이 있다. 이를 ‘반복된’ 또는 ‘되풀이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한다. 이 반복 게임은 좀 더 복잡하고, 그 복잡함 속에는 희망이 있다. 이 반복 게임은 경기자 두 명이 위에서 이야기한 단순 게임을 무한정 반복하는 게임이다. 이번에는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카드를 집어서 다음 게임을 한다. 그 결과 승리를 거둔 전략은 놀랍게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덜 교묘해 보이는 전략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 이 전략은 최초의 승부는 협력에서 출발하고, 그 이후에는 단순히 상대의 앞 수를 흉내 내는 것이었다. 몇 번 게임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 또는 불신을 쌓고, 보복하거나 회유할 기회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무한정 계속되는 게임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물주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둘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배신’이 유일한 합리적인 전략임을 예측할 수 있는 단순한 게임과는 달리, 반복 방식의 게임은 다수의 전략적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라)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도 인류의 밤을 밝힌 백열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 1만 번 이상의 실험을 했다. 중간에 포기할 마음이 들지 않았느냐고 어느 기자가 묻자 “왜 포기를 하나요? 나는 이미 필라멘트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9,000가지 이상 알고 있었는데요.”라고 답했다. 이처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할 때에는 타고난 천재라도 수없이 실패하게 마련이다. 정말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를 베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험난한 실패를 딛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남이 안 한 모험적인 시도를 해야만 진정한 성공이 가능한 것이다.

(마) 가건물 안, 이영복이 균용 침대 위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 그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침대 말에는 주파수 조정이 안 되는 고장 난 라디오가 켜져 있다. 일기 예보와 권투 시합 중계방송이 뒤섞여서 들려온다. 김진만, 구덩이에 죽은 물고기들을 버리고 돌아온다.

김진만: 바삭바삭 목이 타! 새까맣게 가슴속도 타고! (식탁으로 가서 주전자를 들어 올리더니 입을 벌리고 물을 쏟아붓는다.) 며칠째 죽은 물고기만 건져 냈더니 염병할, 나도 이젠 죽고 말겠어!

이영복: (침묵)

김진만: 건져도 건져도 끝이 없다니까!

이영복: (침묵)

김진만: 다 죽은 거야! 한 놈도 남김없이, 수십만 마리가 한꺼번에 다 뒤흔어 버렸어!

이영복: (침묵)

김진만: 여봐, 자네만 충격을 받은 게 아냐. 이번 일로 나 역시 충격이 커. 자네 돈, 내 돈, 몽땅 털어서 이 염병할 양식장에 쏟아 넣었지! 그랬는데 염병할, 우린 이제 완전히 망했어!

이영복: (침묵)

김진만: 얼빠진 듯 가만있지 말고, 무슨 좋은 방법을 말해 봐!

이영복: 생각해 봐야겠어…….

김진만: 도대체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우리가 공동 명의로 이 양식장을 구입했을 때, 그 염병할 브로커 자식이 뭐라고 했지? 몰라도 된다고 했어, 몰라도 된다고! 우리가 물고기를 먹어만 봤지 키워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 사기꾼 브로커 자식이 몰라도 되니까 안심하라는 거야. 손톱만한 물고기 새끼들을 사다가 양식장에 집어넣고 몇 개월쯤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말뚝만하게 자라난다면, 투자한 돈의 몇백 배를 번다나 어쩐다나……. 우리가 속은 거야! 몰라도 된다는 그 사기꾼 브로커 자식한테 우리가 속은 거라구!

이영복: (침묵)

김진만: 우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영복: (침묵)

김진만: 그 염병 앓다가 꼬꾸라질 자식이 상습적으로 남을 속여 먹는 브로커라는 거야. 다른 양식장 일꾼들이 말해 주더군. 적조 때가 되면 나타나 아주 험값으로 양식장을 샀다가, 적조가 사라진 다음 아주 비싸게 팔아먹는댔어. 가만히 앉아서 떼돈 벌 수 있다는 그놈 꾀에, 순진한 우리가 걸려든 거지!

김진만, 해먹 위로 올라가 놓는다.

김진만: 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자식이 나타나면, 먹살 잡고 따귀부터 때리겠어! 양식장을 되돌려 줄 테니까 우리 돈 내놓아라 호통을 치겠다구!

이영복: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 있을까…….

김진만: 뭐라구?

이영복: 난 생각해 봤어……. 생각해 봤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은…… 뭔가 알고 했던 건 하나도 없어.

김진만: 도대체 무슨 소릴 하는 거야?

이영복: 생각해 봐, 자네도. 우리가 처음 했던 일은…… 신설 도서관에 책을 납품하던 일이었지. 그런데 우린 무슨 책임지 몰라도 됐어. 그저 오천 권 가져오라 그러면 아무 책이나 오천 권 가져다 주고, 만 권 주문하면 만 권 갖다주고…….

(바) 영화 「굿 윌 헌팅」에서 교수로 나온 로빈 윌리엄스는 오만한 천재 소년 역을 맡은 맷 데이먼에게 말한다. “내가 미술에 대해 물으면 넌 온갖 정보를 다 갖다 델걸? 미켈란젤로를 예로 들어볼까? 그의 걸작이나 정치적 야심, 교황과의 관계, 성적 본능까지도 넌 알고 있을 거야, 그치? 하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걸? 한 번도 그 성당의 아름다운 천장화를 직접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철들지 않았을 때는 경험보다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며 이들의 축적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최고의 진리라 믿고 살아간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직접 체험한 것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느끼는 직접 체험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게 되지 않을까.

(사) 물을 건널 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젓히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젓히고 하늘에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가 생각했다. 한참 뒤에야 알았지만 물 건너는 사람들이 넘실거리고 빙글빙글 빨리 돌아가는 강물을 보면, 마치 자기 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만 같아서, 갑자기 현기증이 생기고 몸

이 빙글 돌며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고개를 젓히고 우러러 하늘을 보는 까닭은 하늘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다. 어느 겨를에 경각에 달린 생명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경황인들 있을 것이라. 이토록 위험하다 보니 물소리를 듣지 못하고, 모두들 말하기를 ‘요동의 벌판은 넓고 편편하기* 때문에 물소리가 요란하게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물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요동 땅 강물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밤에 건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은 오직 위험한 데만 쏠려 바야흐로 별별 떨면서 눈으로 보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판인데, 어찌 귀에 소리가 다시 들리겠는가?

오늘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을 볼 수 없으니 그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쏠려 귀가 바야흐로 무서워 부들부들 떨면서 그 걱정을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오늘에서야 도(道)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마음에 잡힌 생각을 끊은 사람, 곧 마음에 선입견을 품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귀와 눈이 탈이 되지 않거니와, 귀와 눈을 믿는 사람일수록 보고 듣는 것을 더 상세하게 살피게 되어 그것이 결국 더욱 병폐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 편편하기: 물건의 표면이 높낮이가 없이 매우 평평하고 너르기.

(아) 2004년은 전자 공학의 해였다. 2004년이 전자 공학의 해였던 이유는 영국 과학자 플레밍이 2극 진공관을 발명해서 전자 공학을 연 해인 1904년의 100주년이었기 때문이다. 플레밍의 2극 진공관은 초기에는 크게 쓸모가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것이 곧 정류·증폭·발진이 가능한 3극 진공관으로 진화했고, 3극 진공관은 반도체 트랜지스터로 이어졌다. 반도체 트랜지스터가 전기·전자·컴퓨터의 혁명을 가져오고,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사실은 새삼 재론할 필요가 없다.

기초 과학이 왜 중요한가? 플레밍의 사례가 보여 주는 답은 기초 과학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을 낳고, 기술 발전이 경제의 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의 고양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익히 들어 왔던 모범 답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논리로만 과학을 생각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 우선 과학 연구가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뿐더러 불확실성마저 존재한다. 플레밍의 기초 연구는 1889년에 이루어졌는데, 2극 진공관은 1904년에 발명되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격차가 존재했다. 이는 지금의 기초 과학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줄기세포 연구, 양자 컴퓨터 연구도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면 몇 년이면 응용할 수 있겠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영영 상용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과학은 기술을 낳는다.’는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정부와 기업은 당장 기술로 이어지지 않는 과학은 선뜻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부는 기초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에게 응용에 대한 로드맵과 심지어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까지 적어 내라고 요구한다.

(자) ‘생각의 틀’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향한 마음가짐, 세상에 대한 은유, 사람들에 대한 고정 관념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되는 말이다. 마음을 비춰 보는 창으로서의 틀은 특정한 방향으로 세상을 보도록 이끄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보는 세상을 제한하는 검열관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어떤 ‘생각의 틀’로 세상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부터 얻어 내는 결과물들은 달라진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장기 기증과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장기 이식에 필요한 의료 시설이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종교 등에 차이가 있지만 같은 유럽 내에서도 나라마다 실제 장기 기증에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오

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의 장기 기증 비율은 덴마크, 영국, 독일과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다. 장기 기증 서약률에서 이 두 그룹의 국가들 사이에 거의 6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도 이 정도 차이는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냈을까?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기 기증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정책상 모든 국민이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장기 기증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 절차를 밟으면 기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만 서류 절차를 거쳐 장기 기증자가 된다. 즉, 기증 비율이 높은 나라는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장기 기증자가 되고, 기증 비율이 낮은 나라에서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만 장기 기증자가 되는 것이다. 똑같은 선택을 놓고 틀만 바꾼 것이다. 한쪽에서는 장기 기증자가 되기 위한 선택으로 틀을 설정했고, 다른 쪽에서는 장기 기증자가 되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틀을 설정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을 각각 ‘탈퇴하기’와 ‘가입하기’라고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장기 기증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선택의 문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든 상관없이 장기 기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같은 원리로 장기 기증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책의 틀에 상관없이 장기 기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정책은 사람들에게 아주 다른 생각의 틀을 가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제 행동에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행위의 반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각 제시문에서 반복에 나타난 ‘특징’과 반복의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라) ‘에디슨’ 사례와 제시문 (마) ‘두 인물’ 사례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마)의 두 인물이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서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문 (자)에 언급된 ‘두 가지 정책의 틀’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20점, 400-420자]

평가 목표와 출제 의도

1. 평가 목표

인문사회계열 논술 시험은 고교 교육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갖춘 통합형 인재를 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의 추론적·논리적 사고력에 기초한 종합적 사고력과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언어에 담아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020년 논술에서 사용된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글에서 선별하였고,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양한 각도에서 독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의 '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하였다. 2020학년도 인문사회계열 II 논술 핵심 키워드는 '반복'이다. 구체적으로 1)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사회·문화 등 다양한 교과 영역에서 반복이란 주제와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제시문을 읽고 그 요지와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력, 2) '행위 반복의 특징과 결과'라는 관점으로 주어진 제시문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종합하는 맥락적 사고력, 3) '도전의 반복'이라는 관점에서 직접적인 연계가 없어 보이는 텍스트를 통합하여 차이점을 찾아내고 '도전과 실패를 통해 성공에 이르는 데 필요한 자세'를 도출하는 유추적 사고력, 4)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 해결 방안을 생각의 틀 개념에 기반한 '두 가지 정책의 틀'로 모색하는 대안 제시 능력, 5)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 6)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토대로 주어진 시간에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하여 표현하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출제 의도와 논제 접근 방법

[문제 1]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그 핵심 특성을 파악하는 독해력과 2) 동일한 주제와 특정한 맥락이 결합하여 초래한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하고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네 제시문을 반복이란 맥락 속에서 꼼꼼하게 읽어 행위의 반복 양상을 파악한 후 그 특징적 요소들을 추출해 내야 하고, 이러한 반복을 통해 얻어진 결과가 무엇인지 찾아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 구성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문제 2]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특정한 관점에서 어떤 현상이나 대상을 다각도로 비교해 보는 균형 잡힌 입체적 사고력과 2) 특정한 사례를 근거로 어떤 상황에 직면한 자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를 모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실험을 통해 새로운 발견이라는 성공에 도달한 에디슨의 사례와 사업을 통해 경제적 성공을 이루려는 목적 달성에 실패한 두 인물의 사례를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찾는 통합적 응용력을 평가하고, 주어진 두 제시문을 읽고 그 논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인물이 실패를 딛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문제 3]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1) 주어진 텍스트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초 과학 연구를 어렵게 하는 관점과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는 능력과 2) 생각의 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경제 논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어진 텍스트 속 두 개의 정책적 틀('탈퇴하기'와 '가입하기')을 활용하여 제시하는 응용 사고력을 평가하는데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시문 (아)에서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쉽게 받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시문 (자)의 두 개 정책적 틀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 과학 연구 지원 맥락에 적용하여 제시문 (아)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각각 제시해야 한다.

제시문 출전과 해설

- 제시문 (가): 김주연, 『파우스트 읽기 40년』, 이승원 외, 『국어 I』, 좋은책 신사고, 2014(2016), 222-225 쪽.
- 제시문 (나): 『일탈 행동의 원인과 대책』, 구정화 외, 『사회·문화』, 천재교육, 2015, 81-83 쪽.
- 제시문 (다): 리처드 도킨스, 『마음씨 좋은 놈이 일등한다』, 이삼형 외, 『화법과 작문』, 지학사, 2014(2016), 130-133 쪽
- 제시문 (라): 오세정,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허하라』, 박영민 외, 『화법과 작문』, 비상교육, 2014(2016), 188-189 쪽.
- 제시문 (마): 이강백, 『물고기 남자』, 조현설 외, 『국어 I』, 해냄에듀, 2014(2017), 150-151 쪽.
- 제시문 (바): 홍승우,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걸』, 이삼형 외, 『독서와 문법』, 지학사, 2014(2017), 128 쪽.
- 제시문 (사): 박지원, 『하룻밤에 강물을 아홉 번 건너며』, 김종철 외, 『국어 I』, 천재교육, 2014(2017), 21-24 쪽.
- 제시문 (아): 홍성욱, 『기초 과학의 진정한 가치』, 윤여탁 외, 『국어 II』, 미래엔, 2014(2017), 86-89 쪽.
- 제시문 (자): 최인철, 『생각의 틀』, 신동훈 외, 『국어 I』, 동아출판, 2014(2017), 58-60 쪽.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국어 I』(좋은책 신사고, 2016)에 실린 김주연의 수필 『파우스트 읽기 40년』의 일부이다. 이 텍스트는 “파우스트”라는 책을 읽은 독서 경험이 저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묘사한 부분이다. 의도치 않게 “파우스트”라는 책을 여러 번 읽게 되면서 문학과 인문주의에 눈을 떠가는 과정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2015)에서 『일탈 행동의 원인과 대책』의 일부이다. 이 글은 우발적이거나 가벼운 일탈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나 규정이 어떻게 일탈의 반복과 습관화로 이어지는지를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지학사, 2016)에 실린 리처드 도킨스의 『마음씨 좋은 놈이 일등한다』의 일부이다. 이 글은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응용한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개념과 내용을 소개한다. 저자는 죄수의 딜레마를 응용한 게임의 규칙을 소개한 후 무한정 반복 속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묘사한다. 아울러 무한 반복 게임의 결과가 1회 게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술한다.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비상교육, 2016)에 실린 오세정의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허하라』의 일부이다. 이 글은 젊은이들이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도록 실패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이루어낸 에디슨의 사례를 통해 실패는 성공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강조한다.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국어 I』(해냄에듀, 2017)에 실린 이강백의 『물고기 남자』의 일부이다. 이 글은 브로커의 말만 믿고 바닷가 양식장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한 두 남자의 사례를 담고 있다. 도서관 책 납품 사업에 이어 양식장 사업에서도 실패를 겪으면서, 그 원인이 일에 대한 이해 부족에 있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지학사, 2017)에 실린 홍승우의 『시스티나 성당의 내음이 어떤지는 모를걸』의 일부이다. 이 제시문은 영화 속 교수와 소년의 대화를 통해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보다 직접 체험을 통해 진실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자신은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소중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국어 I』(천재교육, 2017)에 실린 박지원의 『하룻밤에 강물을 아홉 번 건너며』의 일부이다. 열하일기의 일부인 이 글은 감각에 현혹되지 말고 선입견 없이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보여준다.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눈이나 귀를 통해 지각하는 두려움은 실은 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선입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한다.

제시문 (아)는 고등학교 『국어 II』(미래엔, 2017)에 실린 홍성욱의 『기초 과학의 진정한 가치』의 일부이다. 이 글은 경제 논리로 기초 과학 연구 지원을 바라볼 때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기초 과학 연구는 상용화가 불확실하고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경제적 기대 효과를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결국 기초 과학 연구 지원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제시문 (자)는 고등학교 『국어 I』(동아출판, 2017)에 실린 최인철의 『생각의 틀』의 일부이다. 이 글은 생각의 틀이 갖는 의미와 이 관점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생각의 틀은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는 동시에 선택을 제한하기도 한다. 어떠한 생각의 틀로 세상을 볼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 글에서 소개한 장기 기증 사례는 정책의 틀에 따라 장기 기증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획기적으로 달라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예시 답안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는 ‘행위의 반복’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각 제시문에서 반복에 나타난 ‘특징’과 반복의 ‘결과’를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반복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결과 또한 다양하다. (가)의 독서의 반복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연한 계기로 동일 작품을 시간차를 두고 읽게 되면서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문학과 인문주의에 눈뜨게 된다. (나)의 일탈 행위의 반복은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차별이라는 외부적 영향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 결과 일탈 행위가 습관화 되어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다)의 게임 속 반복은 무한정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의 선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이전보다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두 사람은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의 실험의 반복은 분명한 목표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에 의해 일어나며 실패에 대한 분석이 수반된다. 그 결과 목표를 달성하고 혁신과 창의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반복은 우연한 계기, 외부적 영향, 상호 작용, 목표 추구 과정에서 일어나며 그 결과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일탈의 습관화, 협력의 증진, 창의와 혁신을 얻을 수 있다. (561자)

[문제 2] ‘도전’이라는 측면에서 제시문 (라) ‘에디슨’ 사례와 제시문 (마) ‘두 인물’ 사례의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고, (마)의 두 인물이 실패를 딛고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문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라)의 에디슨과 (마)의 두 인물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면모를 보인다. 그러나, 에디슨은 최초의 도전이어서 실패를 피할 수 없었던 반면, 두 인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려는 노력 없이 남의 말에 의존한 결과 실패를 반복하였다. 또한 에디슨이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도전하였던 반면, 두 인물은 비록 뒤늦게 자각하기는 하였으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무모하게 다른 사업에 도전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두 인물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와 같이 지식과 기술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직접 체험을 통해 나 자신을 이해함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찾고, (사)와 같이 경험을 통해 얻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선입견 없이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직접 체험은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는 병폐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선입견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가지 노력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559자)

[문제 3] 제시문 (아)에서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서술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문 (자)에 언급된 ‘두 가지 정책의 틀’을 모두 활용하여 제시하시오. [20점, 400-420자]

(아)에 따르면, 기초 과학 연구는 그 자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다른 외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초 과학 연구에 경제적 논리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경제적 기대효과를 설명하게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요구할 경우, 기초 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지원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의 두 개의 정책 틀을 활용하면, 우선, 가입하기 정책의 틀을 유지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퇴하기 틀의 원리를 활용하여 연구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과학자들 이외의 모든 기초 과학자들에게 연구 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409자)

채점 기준

[문제 1]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반복에 나타난 '특징'과 반복의 '결과'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는지 평가한다.(32점)

(가) 특징: 의도하지 않았으나 우연한 계기로 동일 작품에 대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반복(4점)

결과: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깊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문학과 인문주의에 눈뜨게 됨(4점)

(나) 특징: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라는 외부적 영향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어나는 반복(4점)

결과: 일탈 행위가 습관화되어 벗어나기 어렵게 됨(4점)

(다) 특징: 무한정 반복되는 과정에서 상대의 선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4점)

결과: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져 더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게 됨(4점)

(라) 특징: 분명한 목표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의지에 의해 일어나며 실패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는 반복(4점)

결과: 목표를 달성하고 혁신과 창의에 이를 수 있게 됨(4점)

2) 네 개의 제시문에서 반복에 나타난 특징과 결과를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서론/본론/결론)의 형태로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평가한다.(8점)

① 도입 부분과 결론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한다.(3점)

② 결론 부분에서 각 제시문의 핵심적 내용이 압축적으로 매끄럽게 요약되어 있는지 평가한다.(5점)

[예시]

- 서론: 반복은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그로 인해 얻는 결과 또한 다양하다.
- 결론: 이처럼 반복은 우연한 계기, 외부적 영향, 상호 작용, 목표 추구 과정 속에서 일어나며 그 결과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 일탈의 습관화, 협력의 증진, 창의와 혁신을 얻을 수 있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1]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각 제시문에서 반복의 특징과 결과를 각각 찾아 제시(32점)	4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25~32점
		3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17~24점
		2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9~16점
		1개의 제시문에서 찾아 제시한 경우	4~8점
	② 논리적 구성(3점)과 결론 제시(5점)	서론-본론-결론으로 구성	1~3점
		본론의 내용을 결론으로 잘 도출하여 요약했는지 여부(참신성도 고려)	2~5점

[문제 2] 4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550~57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40점)

1) 제시문 (라)의 사례와 제시문 (마)의 사례를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차이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서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20점)

- 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패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 ② 목표한 일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 ③ 일의 시작과 추진에 있어 자기 주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경우.(5점)
- ④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여부를 파악한 경우.(5점)

2) 두 인물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바)와 (사)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20점)

- ① 제시문 (바)의 논지: 지식과 기술보다 직접 체험을 통해 자신과 인생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음.(5점)
- ② 제시문 (사)의 논지: 경험을 통해 얻는 정보가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으므로 선입견을 버리고 도를 깨달아야 함을 말하고 있음.(5점)
- ③ 통합: 이 두 논지를 통합하면, 성공을 위해서는 직접 체험이 중요하지만 그 병폐 역시 염두에 두고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선입견을 제거하기 위해 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10점)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인 경우, 최대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2]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최대 5점 감점
내용적 측면 (40점)	① (라)와 (마)의 차이점을 다각적으로 찾아 서술했는지 평가(20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패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한 경우	2~5점
		목표한 일에 대한 기본적 이해 여부를 파악한 경우	2~5점
		일의 시작과 추진에 있어 자기 주도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경우	2~5점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려는 노력 여부를 파악한 경우	2~5점
	②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바)와 (사)를 통합하여 제시했는지 평가(20점)	제시문 (바)의 논지를 파악한 경우	2~5점
		제시문 (사)의 논지를 파악한 경우	2~5점
		제시문 (바)와 (사)의 논지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공을 위해 필요한 자세를 제시한 경우	4~10점

[문제 3] 20점 만점

1. 기술적(記述的) 측면(-5점)

1)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자 수(400~420자)를 위반했을 경우 감점한다.

위반 글자 수	감점 점수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2)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최대 3점 감점

3) 답안 작성 시 제시문을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쓸 경우: 최대 5점 감점

2. 내용적 측면(20점)

1) 제시문 (아)에 나타난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지를 평가한다.(10점)

① 기초 과학 연구 지원을 바라보는 경제 논리를 정확히 이해(5점)

② 경제 논리에 근거한 기초 과학 연구지원 신청의 문제점 지적(5점)

[예시]

(아)에 따르면, 기초 과학 연구는 그 자체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고, 다른 외부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기초 과학 연구에 경제적 논리를 과도하게 적용하여 경제적 기대효과를 설명하게 하는 복잡한 신청 절차를 요구할 경우, 기초 과학 연구자들이 연구 지원 신청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제시문 (아)에서 찾은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에서 언급된 ‘두 가지 정책의 틀’을 모두 활용하여 서술하는 지를 평가한다.(10점)

① ‘가입하기’ 정책에 의한 해결방안: ‘가입하기’ 정책에 의한 해결방안으로 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를 언급(5점)

② ‘탈퇴하기’ 정책에 의한 해결방안: 생각의 틀을 바꾸어 ‘탈퇴하기’ 정책을 선택하고, 연구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과학자들이 이외에 모든 기초 과학자들에게 연구 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지를 논리적으로 언급(5점)

[예시]

(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의 두 개의 정책 틀을 활용하면, 우선, 가입하기 정책의 틀을 유지할 경우 경제적 효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탈퇴하기 틀의 원리를 활용하여 연구 지원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힌 과학자들 이외의 모든 기초 과학자들에게 연구 지원을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단, 글이 매우 논리적이거나 창의적일 경우, 최대 3점을 가산할 수 있다.

* 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면 정도에 따라 최대 3점을 감점할 수 있다.

[문제 3] 채점 기준 요약표

기술적 측면 (-5점)	글자 수 위반 (-2점)	±1~25자	1점 감점
		±26자 이상	2점 감점
	맞춤법과 원고지 사용법 (-3점)	중대한 오류	최대 3점 감점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쓴 경우 (-5점)	한 문장 이상 그대로 옮겨 쓴 경우
내용적 측면 (20점)	① 기초 과학 연구 지원에 나타난 문제점 (10점)	경제 논리와 신청 절차의 문제 모두 서술할 경우	7-10점
		경제 논리와 신청 절차의 문제 가운데 하나만 서술한 경우	2-5점
	② 두 가지 정책의 틀에 의한 해결방안 (10점)	가입하기 틀에 의한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2-5점
		탈퇴하기 틀에 의한 해결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 경우	2-5점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6393 **FAX** (02)813-8158
<http://admission.cau.ac.kr>